

January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1 vol.289



Cover Story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2016년 부산시립예술단 신년설계

세계의 공연장 빈 뮤직페라인과 빈 필하모닉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설맞이

국악 환마당

2016. 2. 7 sun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 유초신지곡 중 영불, 타령, 군악 / 집박 : 채수만
- 회심곡 / 회심곡 : 이소정
- 가곡 [남창(언락), 여창(편수대업), 남·여창(태평가)]
남창 : 이희재, 여창 : 정다은
- 가야금 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 남도 민요 [널뛰기, 성주풀이, 신사철거] / 민요 : 박성희, 정선희
- 판굿 / 부산예술단



악장 채수만



회심곡 이소정



정가 이희재



정가 정다은



민요 박성희



민요 정선희



판굿 부산예술단

Mahler

Symphony No. 6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2016. 1. 14(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INTERPARK 1544.1555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051.607.6066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4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코랄환타지”

2015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1위 우승의 주역,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파비오 비디니,
피아노 여제 백혜선과 부산성악가들이 펼치는 신년음악회의 감동으로 초대합니다.



지휘/ 고이치로 하라다



피아노/ 파비오 비디니



바이올린/ 임지영



피아노/ 백혜선

출 연

지 휘 | 고이치로 하라다
오케스트라 | BMF오케스트라 (악장/김동욱)

프로그램

리 스톱 | 피아노협주곡 제1번 E 플랫단조 작품 23 (피아노/ 파비오 비디니)
멘델스존 |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작품64 (바이올린/ 임지영)
베 토 벤 | 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 환타지” C단조
(피아노/백혜선, 소프라노/김경희, 테너/이철성,
바리톤/조현수 외 성악가 3인)
센텀합창단, 부산연합합창단



1월 18일 (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 주관 : (사)부산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후 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입 장 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예 매 처 | 인터파크
- 단체할인 | 20%할인(20명 이상, 전화예매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musicfestival.com www.busanarts.com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를 지향하는 명품앙상블!

2016 제11회 부산국제음악제 콘서트 시리즈

Busan Music Festival Concert Series



고이치로 하라다 피아노 비디니 임지영 백혜선

1월 18일 (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2015 쾨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1위 우승의 주역,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파비오 비디니, 피아노 여제 백혜선과 부산성악가들이 펼치는 신년음악회의 감동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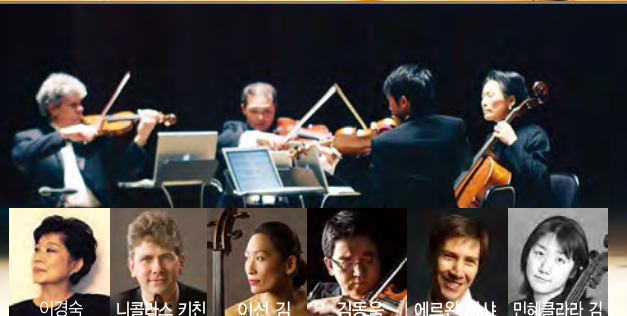
리 스톨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피아노/파비오 비디니) 지휘 | 고이치로 하라다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바이올린/임지영) BMF 오케스트라 (악장/김동욱)
 베토벤 | 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환타지" (피아노/백혜선, 소프라노/김경희, 테너/이철성, 바리톤/조현수 외 성악가 3인)
 센텀합창단, 부산연합합창단

1월 19일 (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거장의 실내악1

슈만이 "베토벤 이래 가장 뛰어난 피아노 3중주" 라고 평한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제1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이곡의 2악장을 연주해달라고 유언했던 슈베르트 생전의 마지막으로 작곡한 대곡인 현악 5중주 C장조의 깊은 감동이 거장 연주자들에 의해서 연주되다!

멘델스존 | 피아노 3중주 제1번 D단조 Op.49 피아노 | 이경숙
 (피아노/이경숙, 바이올린/니콜라스 키친, 첼로/이선 김) 바이올린 | 니콜라스 키친, 김동욱
 슈베르트 | 현악 5중주 C장조 D.956 비올라 | 에르완 리샤
 (바이올린/니콜라스 키친, 김동욱, 비올라/에르완 리샤, 첼로/이선 김, 민혜 클라라 김)
 첼로 | 이선 김, 민혜 클라라 김



이경숙 니콜라스 키친 이선 김 김동욱 에르완 리샤 민혜클라라 김

1월 21일 (목)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인 최초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우승,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1위 수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스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독주회!

그린펠트 | '박쥐' 서곡에 의한 페러프레이즈 '빈의저녁', Op.56
 모차르트 | 피아노 소나타 제10번 C장조, K.330
 라 벨 | 라 발스
 스트라빈스키 | 피아노를 위한 "페트루슈카"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소나타 제2번 B-flat 단조, Op. 36 (1931 에디션)



1월 22일 (금)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기타콰르텟 "피에스타 콘서트"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남성 기타리스트인 김진택, 고의석, 이노영, 김현규로 구성된 클래식 기타그룹 Fiesta가 선사하는 "클래식 기타의 매력"

차이코프스키 | 발레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보케리니 | 서주와 판당고
 P. I. Tchaikovsky | Nutcracker Suite L. Boccherini | Introduction & Fandango
 고스 | 카르멘 환상곡 Francis Kleynjans | Les 4 Points Cardinaux 외 수록
 S. Goss | Carmen Fantasy



1월 24일 (일) 오후 6시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거장의 실내악2

실내악의 묘미와 감동을 한층 더해줄 베토벤 최고의 걸작, 피아노 3중주 "대공",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놓치지 마십시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바이올린 소나타 B장조 작품 18 피아노 | 백혜선, 선우예권
 (피아노/선우예권, 바이올린/ 니콜라스 키친) 바이올린 | 니콜라스 키친
 베토벤 | 피아노 3중주 B플랫장조 작품 97 "대공" 첼로 | 이선 김
 (피아노/백혜선, 바이올린/ 니콜라스 키친, 첼로/ 이선 김)



백혜선 니콜라스 키친 이선 김 선우예권

- 주 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 주관 : (사)부산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후 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입 장 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각 음악회 동일가격)
- 예 매 처 | 인터파크
- 단체할인 | 20%할인(20명 이상, 전화예매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musicfestival.com www.busanarts.com

2016 어린이음악회

피터와 늑대

1.12(화)~14(목)
오전 10:30

1.15(금)
오전 10:30, 오후 3: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지휘_ 이현수 · 나레이션_ 오희경 · 연주_ 부산시립교향악단

- ★ 주최 부산광역시
- ★ 입장권 **균일 2,000원**
- ★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 ★ 관람대상 어린이 및 학부모(4세 이상)
- ★ 문의 607-3106(홍보팀), 607-3144~5(공연운영팀)
- ★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전화(단체예매시)



Cultural Story⁺

- 08 **신년사**
- 10 **커버스토리**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 12 **1월 공연 캘린더**
- 14 **신년특집**
2016 부산문화회관에 바란다
- 16 **인터뷰**
부산시립예술단 신임 수석지휘자 및 예술감독
- 20 **신년특집**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2016년 계획
- 32 **세계의 공연장**
빈 뮤직페라인과 201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_이상훈
- 36 **불멸의 거장 - 변박^⑤**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말 그림이_강남주
- 3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달맞이 고개의 하얀 나무 - 오션어스_강기표
- 42 **테마가 있는 여행**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Boards Inside⁺

- 46 프리뷰
- 50 리 뷰
- 52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새로 나온 책
- 61 새로 나온 음반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1월호 통권 289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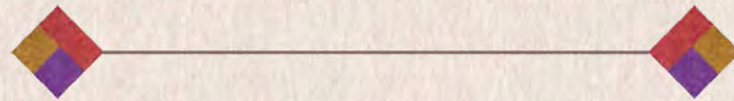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백경옥 정복연 발행일 2015년 12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문화로 치유하는 활기찬 2016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떠오릅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붉은 색은 예로부터 악귀를 쫓아내고 건강, 부귀, 명예 등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한해 붉은 원숭이해의 의미처럼 슬기롭게 영민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에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울고 웃으며 함께 견뎌낸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흘린 땀이 가정과 직장, 우리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행복한 시민들의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부산시립예술단에 베풀어주신 큰 사랑에 대해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문화를 통해 힐링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해내며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드라마와 영화, K-pop 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수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으로 인해 오랜 불황에 허덕이던 클래식 음반시장이 활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문화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문화를 이야기할 때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를 언급할 만큼 풍족하지 않았던 그 시대 선생은 일찌감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산의 문화 융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개 상임단체와 2개의 비상임 청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2016년 새롭게 취임한 지휘자, 예술감독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저력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단체, 예술단원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도 새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완공된 중극장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하반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객석의자 교체를 비롯해 출연자 편의 공간, 연습실, 휴게실 등의 시설이 개선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편은 더욱 쾌적한 시설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족한 공연은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겠습니다.

2016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아침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장 **김 규 옥**

Maestro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프랑스 <르 몽드>지로부터 ‘영적인 지휘자’라고 극찬받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16년 새해 부산을 찾는다. 오는 1월 14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 레퍼토리 ‘말러 사이클’ 중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말러 교향곡 제6번은 말러 절정기의 야심작으로 20세기초 음악계가 나아갈 표현주의적 경향까지 내다본 작품이다. 이 ‘비극적’인 작품을 완성한 1904년은 아이러니하게도 말러가 당대 최고의 지휘자로 빛나는 명성을 누리던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 말러는 사랑하는 장녀 마리아를 잃는 비극을 겪었으며 그 자신 역시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는데다 10년간 몸담았던 빈오페라극장에서 사임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회를 가지면서 국내에 ‘말러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녹음한 ‘말러 교향곡 9번’이 지난해 음악전문지인 ‘BBC 뮤직 매거진’ 8월호가 뽑은 오케스트라 부문 ‘이달의 선택’으로 선정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추앙받는 지휘자 중 한명인 정명훈은 지난 1979년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거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의 보조지휘자로 시작해 2년 후 부지휘자로

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리 바스티유, 라스칼라, 빈 슈타츠히어를 비롯한 세계 우수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지휘를 맡기도 했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1984~1990),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1987~1992),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1989~1994), 로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1997~2005),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별 예술고문(2001~2010)을 역임한 정명훈은 지난 2000년부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악단을 이끌어오다 지난해 6월 최초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되었다. 2012/13 시즌부터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역사상 최초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명훈은 지난 2005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고문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정명훈에 대한 평가는 세계 각국에서 수상한 음악상으로도 알 수 있다. 정명훈은 1988년 이탈리아 비평가들이 선정한 ‘프랑코 아비아티상’과 이듬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상’

을 수상했으며,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의 ‘올해의 아티스트상’, 1995년 ‘브루노 발터상’과 프랑스 음악인들이 선정하는 ‘음악의 승리상’에서 최고의 지휘자상을 포함 3개 부문을 석권한 데 이어, 2003년 다시 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일본의 ‘레코드 아카데미상’,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 훈장’을 수상했으며,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코망되르 레종 도뇌르 훈장’,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음악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5년에는 1998년에 수상했던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27년만에 다시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 부산을 찾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지난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예술감독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 투어, 2011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등 유럽 페스티벌 투어, 2012년 로스앤젤레스 등 북미 투어를 통해 기립박수와 호평을 받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14년에는 영국 BBC 프롬스를 비롯한 유럽 4개 도시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현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중국 국가대극원과 일본 산토리홀 초청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아시아의 주요 오케스트라로서 그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1

2016 JANUARY

CULTURAL SCHEDULE

청림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p>전시실</p> <p>제11회 부경서도대전 - 대·중전시실 1월 23일(토)~1월 26일(화) *1월 23일 15:00 전시 오픈 조상래 010-8501-8181</p>	<p>국제회의장</p> <p>제11회 부경서도대전 시상식 1월 23일(토) 오후 3:00 조상래 010-8501-8181</p> <p>김병원 교수 출판 기념회 1월 9일(토) 오후 3:00 김병원 010-3580-4526</p>	
3	4	5
<p>10</p> <p>중 김보경, 강혜수 Piano Duo Concert 15:00 초대/박병진 010-5137-2881</p>	<p>11</p>	<p>12</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10: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17</p> <p>중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Concerto of Concerto' 18:00 초대/김태훈(010-7543-0883)</p>	<p>18</p> <p>대 2016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코랄판타지'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19</p> <p>대 2016 부산국제음악제 '거장의 실내악'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24</p> <p>대 2016 부산국제음악제 '거장의 실내악' 18:0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25</p>	<p>26</p> <p>중 극단 키즈샘 난타뮤지컬 '알라딘과 요술 램프' 10:10, 11:10 균일 1만원 (단체예매시 5천원)/극단 키즈샘(02-6205-6593)</p>
<p>31</p> <p>대 뮤지컬 '베르테르' 15:00, 19:30 13만원·11만원·8만원 (주)WSM(1566-5490)</p>		

<예술에의 초대>는 **Caffé Deme**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6	7	8	9
			<p>중 제12회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함께' 19:00 초대/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010-8633-4792)</p> <p>소 토요일상설무대-다원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13	14	15	16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10: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라 교향곡 6번' 19:30 12만원·10만원·8만원·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10: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소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10:30, 15: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20	21	22	23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2016 신년음악회'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부산시립예술훈 사무곡(607-3106, 3144~5)</p> <p>중 2016 부산국제음악제 '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19:30 5만원·4만원·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p>	<p>대 2016 부산국제음악제 '기타콰르텟 피에스타 콘서트'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곡(607-3107, 3154)</p>	<p>중 UKYO 신년음악회 17:00 균일 5천원/UKYO(010-3864-3087)</p> <p>소 토요일상설무대-해피앙상블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27	28	29	30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회 '동물의 사육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사무곡 (607-3146, 3105)</p> <p>소 부산 민예총 총위원회 발족공연 '여기에 옴트다' 19:30 무료/(사)부산민예총(807-0490)</p>	<p>대 뮤지컬 '베르테르' 20:00 13만원·11만원·8만원 (주)WSM(1566-5490)</p> <p>소 뮤인트리오 부산 연주 19:30 균일 2만원/(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070-7163-2200, 2211)</p>	<p>대 뮤지컬 '베르테르' 15:00, 19:30 13만원·11만원·8만원 (주)WSM(1566-5490)</p> <p>중 엠브레인 무용단 '이끌림' 19:00 균일 1만원/임병우(010-4442-0272)</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2016

부산문화회관에
바란다

광안대교와 푸른바다가 펼쳐진 곳에 위치한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의 상징이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저 역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객으로, 연주자로 부산문화회관에 개설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연장에 올 때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아이들을 놀이방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이방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책, 장난감, 놀이기구 등이 너무 적었습니다. 또한 관객들이 다양하고 간편한 식사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 생겼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강봉천(작곡가)

영화 <최종병기 활>의 말미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미열을 앓았지만, 바람을 극복하고 파도를 타는 항해사처럼 우리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오랜 벗으로서 힘차게 나아가주길 바랍니다.
-강정룡(부산국제영화제 서비스개발팀 팀장)

영풍한 바람일지 모르지만 문화회관 한켠에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어 그 날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통난 때문에 일찍 문화회관을 찾았다가 멀뚱 앉아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필요하고 소중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간절한 소망을 적어봅니다.
-고예린(정기회원)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빨간 원숭이 해. 밝고 환한 불꽃이 재주꾼의 다재다능함을 도우니 새해는 문화예술인들의 해가 되겠다. 부산문화회관 언저리에 맴돌던 무거운 공기에, 이제 그만 안녕. 눈부신 봄을 곧 영접하리니...
-김민수(시나리오 작가)

부산문화회관을 갈 때면 웬지 설렌다. 공연에 대한 기대와 감동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가슴 속을 울리는 국악연주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합창소리에 매료되는 저녁의 기쁨을 계속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 내내 명품 연극도 보고 함께 춤추며 봄맞이 하듯 활짝 핀 무대를 기다린다.
-김성배(한결아트홀 대표)



무대를 준비하다 보면 극장이 좁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극장마다 오케스트라 피트까지 댄스플로어를 깔아 피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극장과 대기실, 로비, 놀이방 등 장소별로 냉난방을 분리하여 사용했으면 한다. 또 소규모 예술단체로서는 아무래도 대관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대관료 할인 등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수현(현대무용가)**

부산의 문화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의 예술이 발전하는 최종심선에 부산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작품과 관객, 행정 등 많은 관계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음악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다만 지역의 음악인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설 수 있는 연주의 기회가 마련되고 그런 무대가 주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부산문화회관이 많은 연주자들에게 꿈의 무대가 되고 부산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유섬(소프라노)**

지형학적으로 그리 높지도 않은 위치에 있지만 앞이 탁 트여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부산문화회관은 예술이 탄생했던 신전 같아 숭고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문화예술은 신전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저 모여들고 싶도록 극장과 극장 주변 환경이 좀 더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변지연(연극배우)**

1988년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문화회관을 이용해온 기획자의 한 사람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부산문화회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세련된 경영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를 주도해가는 플랫폼이자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홈페이지 개선을 비롯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시 공연 콘텐츠 중심으로 일해주길 바란다.

-이명아(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

부산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가 요즘 트렌드에 너무나도 뒤처지네요. 공연정보, 검색, 예약, 화면구성, 팝업창 등... 스마트시대에 맞춰 효율적 배치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개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를 웹진 형태로도 제공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이영일(관객평가단)**

예술의 가치를 이야기하다보면 사회적 기여에 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문화회관은 공공 극장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야만 한다. 경제 관점에서의 손익 계산을 버리고 공공예술극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도에 기준을 둔 새로운 손익 계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우수한 예술작품과 예술가를 발굴해 내고 부산 시민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배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상배(공간소극장 대표)

함께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문화 현장에서부터 실현됩니다. 부산의 문화 심장! 부산문화회관이 활발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두환(음악평론가, 지휘자)

수준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으로 성원해 온 정기회원으로서 지난해 부산문화회관에서 새어나온 내부 갈등과 분규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2016년 올해는 이러한 내홍을 딛고 부산문화회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산 문화예술의 중추기관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소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산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을 꽃피워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주(정기회원)

무대디자이너로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은 세트 반입구가 따로 없어 늘 들고 옮겨야 하는, 작업자로서 꺼려하는 극장이다. 다른 극장과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극장에 세트 반입구가 따로 있으면 한다. 또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대스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서울 이외에는 무대나 조명, 음향을 전문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다. 부산문화회관에서 극장 시스템과 극장감독 및 관련분야 강사를 초빙해 아카데미 같은 체험수업들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지선(무대디자이너)

[가나다순]



한걸음
도약하는

2016년

INTERVIEW

예술단 신임 지휘자 및 예술감독 인터뷰

“

관객들 눈높이에
맞는 즐겁고
재미있는
음악 선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이정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떠난 지 15년 만에 지휘자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돌아온 만큼 단원들과 청중들과 소통하며 국악관현악단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12월 제8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이정필 지휘자는 국립국악고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음악 대중화와 우리 음악 전승에 대해 함께 고민해온 음악인이다.

효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거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이정필 지휘자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화 기획 일선에서도 활동해왔다.

“지난 11월 객원지휘자로 오랜만에 단원들과 만났습니다. 예전에 비해 단원들의 연주에 신명을 느낄 수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연주자도 즐겁고 관객도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단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필 지휘자는 취임과 함께 지난 3년간의 활동자료를 검토하며 2016년 계획 수립에 분주하다. 그동안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던 공연이 많았던 만큼 지역 기업의 메세나 유치를 통해 청중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연주,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공연장도 부산문화회관에서 벗어나 시민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침체된 단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단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연주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단원 모두의 생각입니다. 2016년 한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변화를 지켜봐주시죠.”

우리 전통의 전승, 우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팔을 걷어 올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지휘자 이정필. 그와 함께 준비하는 201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신명 넘치는 무대가 기다려진다.

“소통과 혁신으로
부산다운 무대 선사”

부산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 **곽종필**



극단 하늘개인날 대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곽종필 연출가가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연극인생 2막을 연다. 1999년부터 극단 ‘하늘개인날’ 대표 겸 상임 연출가로 활동해온 곽종필 감독은 하늘개인날과 함께 부산연극제와 전국연극제에서 대상, 대통령상, 연출상 등을 휩쓸며 부산연극계에 굵직한 작품을 남겼다.

“시립이 아닌 지역 연극계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면 우리 연극계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단원들이 부산시립극단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더 열심히 작품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곽종필 감독은 앞으로 ‘소통’과 ‘혁신’을 모토로 시립극단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단원과 소통하고 부산시립극단의 작품을 기다리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혁신을 통해 부산시립극단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간다는 그는 시립극단 단원들이 신분이 보장된 직업인만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단원들에게 항상 새로운 연극정신을 불어 넣어줄 계획이다. 당장 1월부터 3월까지 배우 신체훈련과 보컬발성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진행된 2015년 마지막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

심하다’의 매진 사례를 보며 좋은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실감했다는 그는 앞으로 부산연극의 현재와 미래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작품활동으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2016년 그 첫 사업으로 ‘부산연극 역사의 힘’을 구상하고 있는 곽 감독은 부산연극계를 이끌어온 허영길, 전승환 연출가에게 연출을 의뢰, 부산시립극단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계획. 창단 20년이 되는 2018년까지 부산시립극단을 최고의 극단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중인 곽종필 감독은 부산 최고의 배우들이 모인 만큼 단원들이 믿고 따라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힌다.

“2016년에는 단원 모두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산시립극단 작품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립극단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준비해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문화 예술 불모지인 서부산권을 비롯해 복지관과 양로원 등 연극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까지, 곽종필 감독과 함께 준비하는 부산시립극단에 기대가 크다.

“
 전문성과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에 도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임 수석지휘자 **이 건 룬**

12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4대 지휘자로 취임한 이건륜 지휘자는 2016년으로 창단 43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오랜 역사를 이어갈 젊고 유능한 지휘자로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하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취임과 함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단원들과 지역 음악계와 소통하고 있는 이건륜 지휘자는 부산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2016년 신년 설계로 분주하다. 이건륜 지휘자는 앞으로 그동안 선보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소년소녀합창단의 노래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건륜 지휘자는 그동안 부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지휘자,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운대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로 다양한 합창 음악을 선사해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피아노와 첼로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건륜 지휘자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500여 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이건륜 지휘자는 미국 대통령 초청 연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작품 연주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알린 바 있다. 2011년 개인 앨범을 직접 작곡 프로듀싱하여 발매하는 등 작곡자로도 활동해온 이건륜 지휘자는 구미 국제음악제에서는 오케스트라 창작곡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재임중에는 직접 뮤지컬 전곡을 작곡하고 음악감독을 맡아 음악성과 대중성, 작품성 3박자를 고루 갖춘 아동 뮤지컬을 선보여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부산의 청소년들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좋은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연주회는 5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극장	기획	1/14(화)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2/23(화) 프랑스 파리 국립음대 교수 초청연주회	3/18(금) 공명&비보이 '음악이 춤을 추다'	4/15(금) 유럽 오페라 극장 주역가수 초청갈라콘서트 4/22(금) 클래식 재즈를 품다	5/21(토) 합창 가요합창음악회	6/24(금) 박영규와 함께 하는 클래식
	예술단	1/21(목) 교향 2016신년 음악회(516회 정기)		3/10(목) 교향 2016신춘 음악회(특별) 3/17(목) 합창(161회 정기) 3/24(목) 국악(183회 정기) 3/25(금) 교향(517회 정기)	4/7(목) 교향(518회 정기) 4/16(토) 합창(특별)	5/19(목) 소년소녀(145회 정기) 5/20(금) 교향(519회 정기) 5/26(목)~27(금) 무용(74회 정기)	6/10(금) 교향(520회 정기) 6/28(화) 합창(162회 정기)
중극장	기획		2/24(수)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2/26(금) 교향 웰빙콘서트 I	3/15(화)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확장 시절'	4/29(금) 교향 웰빙콘서트 II		
	예술단		2/7(일) 국악 설맞이 국악한마당(특별) 2/25(목) 소년소녀(특별)	3/29(화) 청소년교향 (52회 정기)	4/23(토) 국악(184회 정기)	5/18(수) 국악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5/31(화) 청소년교향(특별)	
소극장	기획	1/12(화)~15(금) 교향 2016 어린이음악회					
	예술단	1/22(금) 무용 우리춤 산책 1/28(목) 청소년교향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30(토) 무용 토요일상설무대	2/20(토) 합창 토요일상설무대	3/14(월)~19(토) 극단(55회 정기) 3/20(일)~31(목) 무용 춤추는 동화	4/16(토) 청소년교향 토요일상설무대 4/20(수)~22(금) 극단 어린이를 위한 동화(특별)	5/28(토) 합창 토요일상설무대	6/11(토) 무용 토요일상설무대 6/21(화) 무용 풍류13기 6/25(토) 합창 토요일상설무대
지역(區) 문화회관 및 야외마당						5월 문화나눔콘서트 '행복한 5월' (구 문화회관)	6/9(목) 무용영도문화예술회관 6/14(화) 무용해운대문화회관 6/17(금) 무용동래문화회관 6/21(화) 국악(185회 정기, 을숙도문화회관)
순회 해외 공연		1/22(금)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런치 타임 콘서트			4월 2016 교향악축제 (서울 예술의 전당)		6/21(화) 국악(185회 정기)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7/7(목)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p> <p>7/14(목)~17(일) 뮤지컬 '마타하리'</p> <p>7/27(수) 금년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p>	<p>8/16(화)~17(수) 콘체르토 페스티벌</p> <p>8/18(목) 팔방수같이 시원한 콘서트</p>	<p>9/6(화) 타악퍼포먼스 '타로'</p>	<p>10/4(화) 바로크-현대음악의 만남</p>		<p>12/15(목)~16(금)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p> <p>12/31(토)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p>
<p>7/8(금) 교향(521회 정기)</p> <p>7/20(수) 국악(186회 정기)</p> <p>7/28(목) 합창 썸머 환타지</p>	<p>8/19(금) 소년소녀(146회 정기)</p>	<p>9/7(수) 교향 제7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특별)</p> <p>9/22(목) 교향(522회 정기)</p> <p>9/24(토) 소년소녀(특별) 제30회 청소년합창제</p> <p>9/27(화) 청소년교향(53회 정기)</p> <p>9/28(수) 국악(특별)</p> <p>9/29(목) 합창(163회 정기)</p>	<p>10/5(수)~7(금) 부산합창제</p> <p>10/17(월)~18(화) 국악(특별)</p> <p>10/20(목) 청소년교향(특별)</p> <p>10/21(금) 교향(523회 정기)</p> <p>10/25(화) 소년소녀(특별)</p>	<p>11/4(금) 교향 오페라 인 콘서트(특별)</p> <p>11/17(목)~18(금) 무용(75회 정기)</p> <p>11/22(화) 합창 수험생 음악회</p> <p>11/23(수) 국악(187회 정기)</p> <p>11/24(목) 합창(164회 정기)</p> <p>11/25(금) 교향(524회 정기)</p> <p>11/28(화)~29(화) 국악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p>	<p>12/13(화)~14(수) 무용(특별)</p> <p>12/17(토) 소년소녀(147회 정기)</p> <p>12/20(화) 청소년교향 (54회 정기)</p> <p>12/22(목) 국악(188회 정기)</p> <p>12/29(목) 무용 춤으로 갈무리 하다</p>
<p>7/21(목)~22(금) 교향 2016 어린이음악회</p>					
<p>7월중 교향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축하연주</p> <p>7/7(목) 청소년교향(특별)</p>					
<p>7/13(수)~17(일) 극단(56회 정기)</p> <p>7/25(월)~29(금) 여름연극교실</p> <p>7/30(토) 교향 토요일상설무대</p>	<p>8/20(토) 교향 토요일상설무대</p> <p>8/26(금)~27(토) 무용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p>	<p>9/3(토) 무용 토요일상설무대</p> <p>9/10(토) 청소년교향 토요일상설무대</p>	<p>10/29(토) 합창 토요일상설무대</p>	<p>11/19(토) 교향 토요일상설무대</p>	<p>12/6(화) 무용 풍류14기</p> <p>12/10(토) 무용 토요일상설무대</p>
<p>7/21(목)~22(금) 무용 여름마당 춤 축제 (아외마당)</p>			<p>10/12(수)~14(금) 합창 연가곡의 밤 (금정문화회관)</p>	<p>11/23(수)~25(금) 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장소미정)</p> <p>11/23(수)~27(일) 극단(57회 정기, 장소미정)</p>	<p>12월 중 합창 소그룹공연 (영도문화예술회관)</p>
<p>7월 초 국·공립극단 페스티벌(경주)</p>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풍성한 무대로 만나는 부산문화회관 2016 기획공연

지난해 기획공연 공모를 통해 차별화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부산문화회관이 2016년에도 보다 풍성한 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2016년에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뮤지컬, 크로스오버까지 1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올해 첫 기획공연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제6번'으로, 예술감독 정명훈의 리더십으로 음악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희망찬 2016년 새해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교향곡 전곡 시리즈 연주회'를 가지면서 국내에 큰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작곡가 말러의 교향곡 6번을 연주곡으로 선택, 벌써부터 부산음악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월에는 2월 23일 매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니스아카데미(마스터 클래스) 교수진들이 출연하는 '파리국립음대 교수 초청 연주회'에 이어 2월 24일에는 창작뮤지컬 '식구를 찾아서'가 무대에 오른다. '식구를 찾아서'는 2011년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창작뮤지컬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2년 한국뮤지컬대상 5개부문 노미네이트 및 극본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로 가족이 해체되어가는 사회에서 버려지고, 상처받은 존재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며 가족이 아닌 식구(食口)가 되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3월에는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과 공명&비보이 '음악이 춤을 추다'가 무대에 오른다. 남성중창단 해피양상블이 기획한 '응답하라 학창시절'(3월 15일)은 지난 1970~80년대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그 시절 가요에서부터 동요, 오페라 아리



- ① 월드뮤직그룹 공명
- ② 해피앙상블
- ③ 피아니스트 백건우

아, 예술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드라마 형태로 공연되는 색다른 무대이다. 3월 18일 관객과 만나는 ‘음악이 춤을 추다’는 박승원, 송경근, 강선일, 임용주 등 4명의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무대로, 직접 고안해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을 비롯해 가야금, 전통무용, 힙합, 팝핀, 비보이, 신디, 바이올린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 형태의 이색 무대이다.

4월에는 14일 폭발적인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매너로 음악애호가들을 열광시켰던 ‘유럽 오페라극장 주역가수 초청 갈라콘서트’에 이어 22일에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클래식과 재즈무대가 어우러지는 ‘클래식, 재즈를 품다’가 이어진다.

뛰어난 노래실력을 지닌 연기자 박영규와 전문 성악가들이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크로스오버곡을 들려주는 ‘박영규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6월 24일 관객과 만난다.

7월에는 초대형 뮤지컬 ‘마타하리’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부산을 찾는다. 7월 14일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뮤지컬 ‘마타하리’는 총 제작비만 250억원이 들어간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로, 뮤지컬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엘리자벳’, ‘레베카’,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투아네트’, ‘팬텀’에 이르기

까지 성공적인 흥행신화를 이어온 EMK뮤지컬컴퍼니의 제작 노하우를 집약한 첫 번째 창작뮤지컬로, 매혹적인 팜프파탈 ‘마타하리’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그려낸다. 7월 17일 관객과 만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설명이 필요없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진지한 철학적 성찰과 깊이 있는 연구로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며 전 세계 무대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은 박종화, 김다솔, 탁영아, 황성훈, 송유진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들이 총 출동하는 피아노의 향연 ‘콘체르토 페스티벌’이, 9월 6일에는 국악전문단체 타로(打路)가 선사하는 전통과 퓨전을 아우르는 정열적인 타악 퍼포먼스 무대 ‘타로’가 펼쳐진다. 축제의 계절 10월에는 우리음악과 바로크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크-현대음악의 만남이 4일 펼쳐진다. 부산의 대표적인 현악앙상블인 무지카비바 앙상블이 우리의 고유음악인 줄풍류, 고유악기인 가야금과의 앙상블 연주로 우리 고유의 음악과 바로크음악을 한 무대에서 들려준다.

이 밖에 기획 공모 당선 프로그램 외에도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획 무대로 2016년 풍성한 성장을 선사할 계획이다.

丙申年^{병신년}

2016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년 새로운 각오로 힘찬 출발

2015년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로 한해를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6년에도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년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며 부산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임기가 지난해로 마무리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새로운 각오와 출발로 2016년을 맞고 있다.

1월 12일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음악회 2016 어린이음악회 '피터와 늑대'로 2016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 한해 10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1월 1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016 어린이음악회 '피터와 늑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해설과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 맞춤 음악프로그램으로, 현재 서울오페라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현수의 객원지휘로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로 널리 알려진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를 들려준

다. 어린이음악회는 1월 무대에 이어 여름방학기간인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진행된다.

2016년 첫 정기연주회인 제516회 정기연주회 '2016 신년음악회'는 1월 21일 국제 니콜라이 말코 콩쿠르 우승자로, 일본에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지휘자 세이코 김의 객원지휘로 새해를 맞는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들려준다. 3월 10일 열리는 신춘음악회에 이어 3월 25일 제51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지난해 5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취임해 열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박영민 상임지휘자를 초청, 2016년 봄의 따스함을 알리는 경쾌한 무대를 마련한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가 펼쳐진다.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한 '클래식은 내친구'는 매년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클래식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 기존 오페라의 대형 무대세트를 배제하고 오페라 전곡을 오케스트라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페라 in 콘서트'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의 교향악단이 펼치는 '2016 교향악축제(4월중, 서울 예술의전당)', 청소년 유망주 발굴을 위한 '제7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9월 7일)',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들려주는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12월 15일~16일)', 12월 31일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나누는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역시 2016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관객의 눈높이 맞는 즐겁고 재미있는 무대선사

“2014년 창단 3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작국악관현악을 대중화시킨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관현악단입니다. 2016년은 오랜 전통에 걸맞는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2015년 12월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을 지낸 이정필씨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2016년에는 침체된 국악관현악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이정필씨에 대한 기대가 높다.

1월 시작과 함께 부산의 자매도시 후쿠오카 아크로스홀 공연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문화도시 부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6년 6회의 정기연주회와 6회의 특별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에서의

첫 무대는 2월 7일 한해의 액을 풀고 복을 기원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흥겹게 연다. 본격적인 연주회는 3월 24일 이정필 지휘자의 취임연주회를 시작으로 2016년 바쁜 일정이 이어진다.

취임과 함께 지난 3년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레퍼토리를 분석하며 2016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정필 감독은 단원들에게 분위기 쇄신에 가장 큰 주문을 하고 있다.

미래 국악도들을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5월 18일), 환경을 테마로 한 '상생' (6월 21일),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기획 공연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8월 18일), 우수 단원들이 협연자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실내악 무대 '3인 3색 음악회' (9월 28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12월 22일)까지 2016년에도 풍성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필 지휘자는 새해에는 기존 공연 외에도 상설 공연 지역을 선정해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아시아의 관문 부산을 기점으로 아시아 문화교류, 전통 음악 교류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2015년부터 '아시아 민족 음악의 밤'을 계획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6년에도 예산 반영을 받지못해 공연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

새로운 창작합창 발굴로 합창의 즐거움 선사

지난해 7월 제9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전상철 신임 수석 지휘자와 함께 2016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부산시립 합창단은 올해도 정통적인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정기 연주회와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기획 연주회로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쓴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두차례 '창작 합창음악의 밤'을 마련한다. 우선 3월 17일 열리는 제16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이영조, 김동수, 전경숙, 정애련, 제갈삼, 안일웅, 최석태, 백승태, 김중욱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창작합창곡을 시대별로 무대에 올리며, 11월 24일 제16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작곡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합창곡 공모를 통한 '신진 창작합창 편곡의 밤'을 가진다.

4월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모차르트의 유작

이자 미완성곡인 '레퀴엠'으로 추모음악회를 마련한다. 또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유명 작곡가들의 레퀴엠을 연주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의 대표 작곡가인 구노의 '장엄미사'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무대에 올린다.

5월 19일 열리는 '7080 가요합창'은 청중들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김광석, 유재하, 김현식, 이영훈 등 지난 가요계를 대표했던 가수들을 중심으로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색깔에 맞춰 새롭게 편곡한 국내의 가요, 팝음악을 들려주는 '썸머판타지' 2016년 무대는 7월 28일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 제6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했던 익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상렬의 객원지휘로 아바의 '맘미미' 모음곡과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컬렉션 등으로 한여름밤 시원한 음악축제를 펼친다.

이밖에 9월 29일 펼쳐지는 제16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을의 감성이 묻어나는 감미로운 합창 무대 '가을의 길목에서', 10월 중 區 문화회관에서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연가곡 전곡무대로 꾸며지는 '연가곡의 밤',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부산합창제'는 10월 5일부터 사흘간 펼쳐지며 12월 15일과 16일 제16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자리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2016년을 마무리한다.

특히 2016년 올해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시민합창아카데미를 개설, 늘어나는 합창 애호가들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새로운 미래를 위한 힘찬 도전

지난 1973년 전국시도립무용단으로 처음으로 창단, 지역 문화 발전, 무용인구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온 부산시립무용단은 지난해 부산시립무용단을 이끌어왔던 홍경희 예술감독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새로운 예술감독과 함께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땀흘린다는 각오로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2016년 올해 2차례 정기공연과 7차례 특별공연, 기획공연, 순회공연, 교류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2016년 첫 무대는 1월 22일 열리는 '2016 우리춤 산책' 무대로, 평소 끊임없이 우리춤을 연마해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전통 춤 사위를 선보인다.

3월에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하는 '춤추는 동화'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세계적인 명작 발레 '호두까기 인형'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를 각색한 '클라라와 호두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던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기를 모으면서 공연 때마다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매년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춤판인 '2016 여름마당 춤 축제'는 7월 21일과 22일 이틀간 관객들과 만난다. 보다 시민들 곁에 가깝게 다가가기와 함께 하는 시민 참여 춤 축제로,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전통을 토대로 한 수준높은 창작무대를 만날 수 있었던 정기공연은 올해 5월(5월 26일~27일)과 11월(11월 17일~18일) 두차례 무대에 오르며, 단원들의 창작 열정을 만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은 8월 26일과 27일, 시민무용교실을 통해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2016 풍류(風流)'는 6월 21일과 12월 6일 상하반기로 나뉘어 두차례 펼쳐진다. 국립부산국악원과 (사)부산무용협회, 부산시립무용단 등 부산의 주요 3개 춤단체가 함께하는 춤 교류전 '춤으로 갈무리하다'는 12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춤으로 갈무리하다'는 우리춤으로 부산춤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한 뜻깊은 무대로, 전통춤과 창작춤을 포괄하는 풍성한 무대로 호평받고 있다.

이밖에 무용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무용교실, 어린이 한국춤 교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복지관 순회공연, 구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공연 역시 2016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부산시립극단

시민 속으로, 부산스럽게

2015년 마지막 정기공연 작으로 선보인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로 부산연극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부산시립극단은 신임 예술감독 곽종필과 함께 맞는 2016년 활동에 대한 각오가 각별하다.

때문에 정기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도 소통과 혁신을 준비하는 곽종필 신임 예술감독과 함께 만들어갈 2016년 무대 준비로 전 단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새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산시립극단은 2016년 3월과 7월, 11월 총 3회의 정기공연과 2회의 기획공연, 2회의 순회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6년 작품은 철저히 부산사람들이 만드는 부산스러운 작품들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산연극계를 이끌어온 허영길, 전승환 선생님이 부산시립극단을 직접 연출하시고 제가 연출할 11월 정기공연은 이운택 선생님께서 부산의 역사, 정서가 담긴 악극을 집필하실 계획입니다.”

2016년 한해 부산시립극단 단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곽종필 예술감독의 제안에 의기투합한 단원들은 3월 첫 무대가 될 이강백 작 '영월행 일기' 공연을 앞두고 작품 분석, 개인 연습이 한창이다. '영월행 일기'는 시립극단에서는 처음으로 더블 캐스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 배우에 따른 다른 느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타킷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예술단, 청소년을 위한 맞춤 무대 등 다양한 무대를 구상하고 있는 곽종필 감독은 여건이 된다면 1년의 3회로 계획된 정기공연 중 한번 정도는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공연 감상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산권 지역민을 위해 공연을 올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들과의 교감이 적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강연과 연극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4월에는 부산문화회관 광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 만들기, 색칠하기, 아동극 등을 선보이는 '어린이 연극체험'을 진행하고 여름방학에는 시립극단 배우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 연극교실'과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 7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공립극단 페스티벌과 8월 타 시도 교류 공연 등을 통해 소통과 혁신으로 재단장한 부산시립극단의 새 기운,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각오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준높은 무대 선사

지난해 3월 제4대 수석지휘자로 위촉된 김범수 수석지휘자와 새로운 감성이 넘치는 수준높은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6년 새해에도 더욱 성숙한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예술적 소양을 키워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수석지휘자 김범수와 전 단원들이 최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16년 첫 무대는 1월 28일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회 '동물의 사육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 선물이 될 이번 무대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곡인 생상스의 관현악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로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3차례 예정된 정기연주회에서는 정통 클래식을 바탕으

로 실력있는 부산지역 연주자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3월 29일 열리는 제5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2016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르자데'를 들려준다. 10월 20일 제53회 정기연주회이자 '2016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시리즈' 두 번째 무대에서는 '오페라 속 합창'이라는 주제로 베르디의 '대장간의 합창'(오페라 '아이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오페라 '나부코'), 보로딘 '폴로베츠인의 춤'(오페라 '이고르공') 등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유명 합창곡과 관현악곡을 부산시내 구립합창단과 함께 들려준다. 12월 20일 송년음악회로 마련되는 제5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지역 발레단과 함께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5월 31일 열리는 특별연주회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스크린을 통해 영화음악을 즐길 수 있는 '2016 패밀리 콘서트'가, 7월 7일에는 단원들 중 오디션을 거쳐 실력있는 협연자를 선발해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가 펼쳐지며 9월 27일에는 부산지역의 실력있는 성악가와 원로 성악인을 초청, 오페라 하이 라이트 무대로 꾸며지는 '오페라 산책'이 준비되어 있다. 또,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토요일상설무대에서는 보다 대중적이면서도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하며 찾아가는 공연, 순회공연, 해외공연 등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풍성한 합창무대

2015년 12월 뮤지컬과 실용음악,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젊은 지휘자 이견륜씨가 제4대 수석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2016년 병신년을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6년 한해 3회의 정기공연과 3회의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5년 메르스를 비롯한 공연계의 악재 속에서도 다양한 기획 무대와 씩 없는 연주활동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5월에는 전국 시립단체로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을 받아 현지인들에게 우리 음악과 부산을 알리면서 세계 무대에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알렸고 9월에는 전국 16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대구, 광명, 통영, 광주, 김포, 군포, 성남, 서울, 순천, 구미, 의정부, 김해, 안성, 창원, 과천)이 참여한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페스

티벌을 부산에서 진행하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무대는 2월 월드비전선명회 어린이합창단과의 교류연주회 'Friendly콘서트'로 출발한다. 이견륜 지휘자의 취임연주가 될 5월 정기연주회는 '부산'을 주제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에 이어 9월에는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1986년 시작된 부산청소년합창제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풍성한 합창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2014년 처음으로 진행한 독도이야기는 2016년에도 이어진다. 독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독도이야기'는 올해도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그 세번째 이야기가 진행된다.

12월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메리크리스마스 인 러브'로 2016년을 마무리할 계획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뮤직캠프와 향상 음악회, 가족 음악회 등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부산출신 젊은 지휘자 이견륜과 함께 만들어갈 2016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빈 뮤직페라인과 201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십대 부터 고전음악을 듣고 공연장을 찾았던 필자에게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오랫동안 꿈의 연주회였습니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보기 어려운 공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연주회 티켓이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티켓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2014년부터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제작년과 작년 다니엘 바렌보임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 특별한 연주회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올해 역시 마리 안손스의 지휘로 펼쳐지는 콘서트를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의 몇 개봉관에서 실황으로 연주회를 상영해주기 시작했고 해마다 빈 필 신년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음반과 영상물이 제작되기도 합니다. 사실 빈 필하모닉은 해외 연주단체 중 국내에도 비교적 자주 소개되는 관현악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마다 여름이면 잘츠부르크 페



스티벌의 호스트 교향악단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빈필하모닉의 투어 연주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곳곳에서 기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들이 상주해 있는 이곳 빈의 Musikverein 뮤직페라인에서 빈 필하모닉을 만나기는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연의 매표와 달리, 빈 필은 악우회를 통해서 먼저 티켓이 발매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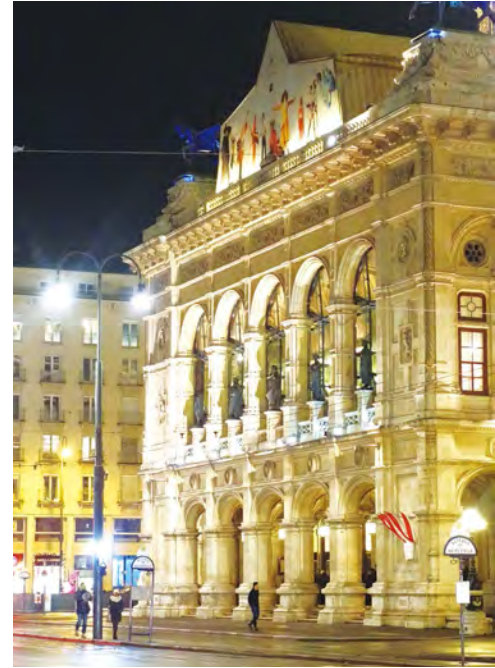
다시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이 특별한 연주회를 위해 이탈리아 서북해안에 위치한 San Remo 산레모에서 공수해온다는 3만 송이의 꽃으로 연주 당일 뮤직페라인은 장식이 됩니다. 연주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총천연색의 꽃장식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런 호사스러운 연주회가 또 세상에 있을까요.

연주 전부터 스태프들은 전세계로 생중계 촬영을 하는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클래식 매니아들은 어찌면 제각기 같은 꿈을 가지고 모였고 드디어 오늘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일수도 있습니다. 뮤직페라인의 양쪽 회랑 기둥은 마치 화려한 신전에 온 마냥 금빛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황금홀이라는 뮤직페라인의 애칭을 실감케 합니다.

1월 1일 오전 11시 15분, 드디어 2016 빈필 신년음악회가 시작됩니다.

2016년 빈필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은 마리 얀손스가 잡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의 지휘도 함께 맡았습니다만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직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지휘했던 주요 역대지휘자를 살펴볼까요.

1941~1954년 클레멘스 크라우스가 14년간 빈 필하모닉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는 빈필 신년음악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955~1979년 빌리 보스코프스키와 얼마전 타계한 로린 마젤(1980~1986)이, 1987년에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를 맡습니다. 클



라우디오 아바도(1988, 1991), 카를로스 클라이버(1989, 1992), 2000년에 들어서는 세이지 오자와(2002), 니콜 라우스 아르농쿠르(2001, 2003), 리카르도 무티(1993, 1997, 2000, 2004), 로린 마젤(1994, 1996, 1999, 2004), 주빈 메타(1990, 1995, 1998, 2007, 2014), 다니엘 바렌보임(2009, 2014), 조르주 프레트르(2008, 2010), 프란츠 벨저 뢰스트(2011, 2013) 그리고 2016년 마리스 얀손스(2006, 2012)가 무대에 섭니다.

1941년 빈 필 신년음악회가 시작되었던 첫 해부터 올해 2016년까지 무려 76년 동안 이 무대의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불과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명단에 빠져 있는 최고의 지휘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베를린필이나 계반트 하우스 같은 독일의 주요 오케스트라의 Silvesterkonzert 송년음악회는 12월 29일~31일 연주되기에 객원을 세우지 않으면 12월 30일, 31일 & 1월 1일하는 빈 필 신년음악회의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사이몬 래틀이나 리카르도 샤이같은 지휘자가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이죠. 그럼에도 명단에 올린 15명의 지휘자는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며 1987년 카라얀 등장 이후 클라우디오 아바도, 카를로스 클라이버,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까지는 빈 필 신년음악회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이기도 합니다.

왈츠를 원없이 들었던 1막 이후 잠시 인터미션 시간을 가집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고전음악 애호가들, 분명 오늘 연주회에 함께 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ORF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에서 관객들을 한명 한명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 왈츠 댄서들이 연주 막간 사이에 통로에서 멋지게 왈츠를 추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마지막 커튼 콜은 '라데츠키 행진곡', 이렇게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빈 심포니 송년음악회

만약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의 티켓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한때 빈 필 못지않은 전성기를 구가했던 빈 심포니의 송년음악회를 추천드립니다. 빈 필 신년음악회와 마찬가지로 12월 30일, 31일 그리고 1월 1일 Konzerthaus 콘체르트하우스에서는 해마다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이 시기에는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이죠. 1913년 완공된 빈 콘체르트하우스는 앞서 뮤직페라인 그리고 빈 슈타츠오페(국립가극장)과 더불어 비엔나를 대표하는 공연장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빈 필하모닉의 그늘에 가려 있지만 빈 심포니(교향악단)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야 비로소 카라얀이 취임, 1947년부터 10년간 지휘자로 재임하기도 했습니다.(카라얀은 빈 악우협회 음악감독으로 일하면서 빈 교향악단의 지휘를 맡은 것에 불과하였고 정식 임명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수석지휘자로 있던 자발리쉬가 초대 상임 지휘자라는 말이 됩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줄리나가 그 지위에 있었으며, 그 후로는 다시 상임지휘자가 공석인 채 운영, 게르트 알브레히트가 취임 하여 상임지휘자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빈 심포니는 1946년 창설한 브레겐츠 호(湖)의 야외 수상 무대로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로도 잘 알려져있고, 얼마전 교체되어 아쉽긴 하지만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씨가 수석단원으로 재임한 곳이기도 합니다.

Konzerthaus 콘체르트하우스라는 이름의 공연장은 베를린에도 있는데 동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필하모니아가 세워지기 전까지 베를린을 대표하는 공연장과 오케스트라이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베토벤 합창교향곡은 자주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

단과 그리고 4명의 솔리스트까지, 생각만큼 자주 접할 수 있는 공연은 아닙니다.

J. Strauss의 오페레타 'Die Fledermaus 박쥐'

연말 연시 전세계의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어김없이 무대에 올려지는 두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오페레타 'Die Fledermaus 박쥐'와 발레공연 'Nutcracker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대개 오페라하우스에는 오페라단과 발레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작품을 번갈아가면서 공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Wiener Staatsoper 빈 국립극장에서 박쥐가 더 의미 있는 건 1874년 J. Strauss 스트라우스가 이곳 빈에서 초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럽 오페라의 중심 빈 국립극장입니다.

다만 오페레타 '박쥐'는 독일어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들의 익살스런 해학과 연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립싱크 같은 연극적인 요소도 있어서 공연 중간 중간 박장대소를 하는 현지 관객들과 같은 호흡으로 공연을 볼 수 없었음이 무척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빈 국립극장에서 스트라우스의 박쥐를 만난다는 건 빈필 신년음악회를 보는것 만큼 현지에선 인기있는 공연입니다.

동래의 화가 변박,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말 그림이

글 강남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계미년 10월 옛새 부산을 떠났던 변박은 갑신년 6월 스무 사흘날에 부산으로 되돌아 왔다.
부산을 떠난 뒤 8개월 열 이레 만이다. 그러나 화가로서의 그의 가슴은 비어 있었다.
채우고 싶었던 그림을 가슴 어디에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일본에서의 그의 그림은 ‘송하호도’와 ‘목매도’ 뿐이다. 통신사의 화가를 연구한 어떤 학자는 ‘목죽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누구나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도 있었다.

1763년 계미년에 부산을 떠난 사행단의 선장들 가운데는 변박(卞璞)이 있었고 변탁(卞琢)도 있었다. 둘 다 동래 출신이었다. 성이 같은 변씨였고 이름도 외자였다. 나이도 비슷했다. 변박은 탁지(琢之)를 호로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변탁마저 그림 솜씨가 상당했다. 거기에다 공교롭게도 둘 다 정사인 조엄이 발탁한 인물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관상대가로 알려진 니야마 다이호라는 사람이 쓴 책 ‘한객인상필화(韓客人相筆話)’를 보면 오사카에서 그는 변탁을 만났다. 그가 만난 변탁은 나이가 스물세 살이라고 까지 밝히고 있다. 선장에다 그림도 잘 그리고 나이도 변박과 같아 보여 누가 봐도 변박과 변탁은 같은 사람이라고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둘은 다른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계미년 사행원 명부에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조엄 정사의 해사록에 기록된 변박의 설명과 변탁의 설명을 봐도 둘은 다른 사람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학자들이 둘을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목죽도’는 변박의 그림이 아

니다. 변탁의 그림이다. 그것을 변박의 그림으로 잘못 알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변박의 그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오해도 있다. ‘유하마도(柳下馬圖)’라고 알려진 그림이 그렇다. 오해라기보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유하마도’라면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말의 그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의 이름은 ‘유마도(柳馬圖)’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유하마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 그림은 현재 일본의 타카마츠라는 곳에 있는 절 호넨지(法然寺)에 보관되어 있다.

그 그림을 둘러싼 터무니없는 논문도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학자가 쓴 1763년 사행의 화원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을 그린 연대와 화가를 ‘세기해초하술재(歲己亥初夏述齋)’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린 시기가 유하마도의 뒷면에 적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그림을 그린 시기와 화가는 그림의 뒷면이 아니라 그림의 앞면 원편, 약간 빈 공간 중간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

‘유마도’는 혹시 변박이 사행길에 그린 그림은 아닐까.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사행길과는 똑 떨어져 일본 본토로부터 바다를 건너야 하는 시코쿠(四國)에 그 그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를 가웃하는 사람이 있다. 필자도 그랬다. 그래서 필자는 그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일본 시코쿠의 호넨지까지 직접 찾아갔던 일이 있다.

그림을 확인하니 그림 그린 시기가 '세기해초하동화술재사(歲己亥初夏東華述齋寫)'라고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낙관까지 찍혀 있었다. 이것을 유하마도의 뒷면에 적혀 있다고 했으니 보통 착각이 아니다. '세기해초하'는 1779년 초여름이란 뜻이다. '동화(東華)'는 당시 조선의 유교문화가 중화(中華) 곧 중국과 같고, 조선은 중화 곧 중국의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동화'라고도 했으며 '술재사'는 술재 변박이 그렸다는 뜻이다.

그림이 들어 있는 오동나무 상자 뚜껑을 보는 순간 필자는 눈을 의심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유마도(柳馬圖)라고 한지에 적힌 그림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림 이름 '유하마도'가 틀렸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림 이름 아래에는 조선술재사(朝鮮述齋寫)라고 적힌 한지도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폭 70cm 정도, 길이 170cm는 넘을 것 같은 두루마리 그림이 들어 있었다.

유하마도라고 알려졌던 그림이 실제로는 유마도라는 명찰을 달고 그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유마도가 어떻게 호넨지까지 오게 됐을까. 1779년에 그린 변박의 그림 유마도의 행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에게 유마도를 호넨지에서 보관하게 된 내력을 물었다. 스님도 그 내력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말을 하고 난 뒤 금방 그 내력이 밝혀졌다.

그림을 본 필자는 이것저것 사진도 찍었다. 그 뒤 스님이 나무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뚜껑의 안쪽에 역시 한지에 적힌 다음과 같은 붓글씨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朝鮮人述齋之一軸相對馬守殿 조선인술재지일축상대마수전
後室從真心院殿被送當山心響 후실종정심원전피송당산심에
依附法然寺永付也 의부법연사영부야
寬政四年壬子正月 관정사년임자정월

유마도는 확실히 술재 변박의 것임이 밝혀졌다. 그것이 대마수의 후실에 의해서 호넨지에 보내져 영원히 보관하게 되었다는 내력도 밝혀졌다. 보관하게 된 때가 관정 4년 임자년이다. 12간지로 계산해도, 또 일본 연호로도 1792년이 분명했다. 그림을 그린 뒤 13년 만에 삼나라 일본, 그 가운데에



변박, 유마도 1799년, 지본수묵, 호넨지

서도 섬인 시코쿠의 이 절에서 보관하게 된 것도 확실해졌다. 당시 조선 그림은 인기가 높았다. 추측컨대 명성이 높은 변박의 그림을 대마도의 누군가가 부산에서 구입, 대마수에게 준 것이 호넨지까지 흘러들게 된 것이다.

동래의 화가 변박. 그의 또 다른 그림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가려진 채 숨 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뿐 아니라 동래의 어디에서도 빛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그림이 어느 날 “나 여기 있소.” 하고 나타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멸의 거장 변박 편을 1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강남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달맞이 고개의 하얀 나무 오션어스

글 강기표

건축가 /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바다에 뜬 달을 보기 좋은 곳 '달맞이 고개'. 미포(尾浦)에서 청사포(靑沙浦)로 넘어가는 와우산(臥牛山)의 중턱 해운대 해안의 동쪽 끝으로 고갯길을 따라 벚꽃과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봄날의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만개한 벚꽃과 달빛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는 곳이고, 바라다보는 바다는 창파(滄波)라 일컬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예전 동해남부선과 장산으로 막힌 해운대와 송정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였고, 송정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고개였다. 고갯길의 아래의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이 내려다보이는 고개의 중턱에는 카페와 갤러리와 고급 연립주택들이 즐비하다. 개발이라는 광풍이 휩쓸고 간 고개의 위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산의 허리를 내려누르고 있다.



소나무 숲의 하얀 나무

해양 플랜트 기업인 '오션어스(Oceanus)'는 주변의 소나무 숲과 갤러리들 사이에 하얀 나무처럼 심어져 있다. 산 중턱의 대지는 달맞이 고개 도로와 위의 도로 높이차가 15m로 일반 건물의 5층 높다. 부산 도시 구조의 특징인 대지의 높이차를 용도의 zoning(Zonning)으로 크게 활용하고 있다. 총 6개층의 규모는 지하 3개층, 지상 3개층으로 나누어지며, 위의 도로와 면한 지상 4층(건축법상 지상 1층)에 주차장과 주출입 홀이 있고, 업무공간을 5, 6층(건축법상 지상 3, 4층)에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낮아도 무관한 '어션어스 아트 홀'은 지면 하부의 2층과 3층(건축법상 지하 1, 2층)에 배치시키고 있다. 4층 주차장에 면한 홀을 통하여 오르게 되는 5층과 6층의 업무공간은 아트홀과 동선이 분리되며 업무공간으로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층의 업무 공간은 선박의 뱃머리와 같이 해운대 앞 바다를 향하며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이라는 점을 은유하는 듯하다. 6층의 회장실과 회의실은 크루즈선의 안락함이 있고, 외부 데크를 통하여 바다를 한껏 받아들이고 있다. 건축 외피의 연장으로 디자인된 옥상층의 바닥과 구조물은 푸른 바다와 멋지게 어우러지고 있다.





다목적성의 아트 홀

달맞이 고개의 도로를 주출입으로 면한 아트홀은 1층(건축법상 지하 1층)에 야외 전시 마당과 수장고를, 2층과 3층에 아트홀을 두고 있다. 달맞이 고개를 오르듯 만들어진 외부 계단은 자연적 경사와 자연 조경을 유지시키며 2층으로 안내한다. 달맞이 고개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수법이 돋보이는 계획이다. 1층의 외부계단과 이어지는 계단은 외부인 듯 또는 내부인 듯 하며 2층과 3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아트홀로 유도한다. 계단이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만남과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 주고 있다. 다목적 용도를 갖는 아트홀은 2층과 3층을 이어주는 또 다른 내부계단과 3층의 반을 비워 2층의 층고를 높임으로서 층간의 단절을 극복하며 다목적성을 높

이고 있다. 높은 층고는 대형 작품의 전시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비워진 3층은 발코니가 되어 음악회 등의 공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대한적십자사 110주년 기념 한국 현대미술 희망나눔 특별전’이 기획 전시되기도 하였고, 연중 1~2차례 개최되는 음악회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를 위한 무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구조와 스킨의 통합과 소통

오션어스에는 두 가지의 건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구조와 외장을 꾸며주는 스킨(외피, Skin) 통합이다. “투명성을 통하여 자연의 형태에서 발췌한 다양한 단면 패턴을 가진 스킨과 기능을 담는 거대한 통과 같은 구조로 구성하였다.”라고 설계자인 건축그룹 운생동¹⁾은 설명하고 있다. 구조는 구조대로 외피는 외피대로 치장하는 여타의 건축과 달리 구조와 외피가 결합되고 있다. 파도의 패턴과 나뭇가지의 패턴이 겹쳐지는 프레임들은 내외부의 풍경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고, 경사지를 따라서 쌓여진 업무 기능과 아트홀 기능이 주변 자연과 결합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며 건축이라는 큰 그릇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부를 담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면하부의 공간에서 오는 환경적 제약의 극복을 위한 선큰(Sunken Garden)²⁾의 설치이다. 상대적으로 개방감의 필요성이 작아, 지면하부에 배치된 아트홀에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채광과 자연환기를 두 개의 선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나는 건물 후면 도로와의 높이차를 위한 옹벽을 선큰화시키며 자연 환기를 유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주변을 선큰화함으로써 자연 채광을 돕고 있다. 투명한 엘리베이터는 빛의 통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옥은 그 기업의 얼굴과도 같다. 좋은 기업은 그 기업의 사옥에서 좋은 건축으로 나타나고, 그 건축에 담긴 문화가 있다면 그 기업의 문화를 구축한다. 나아가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있다면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준다. 망미동의 '키스와이어 뮤지움'이 그렇고 범일동의 'LIG 아트센터'가 그렇다. 오션어스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문화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뒷이야기 하나, 오션어스는 '2015년 부산다운 건축상'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01_파도와 나뭇가지때던과 바다

사진작가 'Sergio Pirrone'

02_스킨의 연장으로 디자인된 옥상

사진작가 'Sergio Pirrone'

03_발코니 같은 비워진 3층과 2층의 아트홀

1) **건축가그룹 <운생동>**은 건축의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발현해내기 위한 <개념적 건축>을 실험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이다. 건축의 다양한 분야인 건축설계, 인테리어, 건축기획, 프로그래밍, 대단위 단지계획 등의 여러분야를 협력건축가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건축가들의 협력집단체이다. 서울오피스에 장윤규 교수, 신창훈 소장, 이영범 교수, 뉴욕오피스에 윤정현 소장을 주축으로 건축가 그룹이 결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세계적인 건축상인 Architectural Review에서 시상하는 AR Award를 수상하였고, 2006년에는 미국 저명한 저널인 Architectural Record에서 세계에서 혁신적인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Vanguard Award를 수상하였다. 또한 썬지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청계천 전시 등 <스페이스 코디네이터>의 개념을 도입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실험하고 있다.

2) 선큰(Sunken Garden)

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대설(大雪)도 지나간 지난 12월 11일 때아닌 겨울비가 보슬 보슬 내리는 가운데 2015년 마지막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 투어' 마지막 여행지는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주남저수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는 매년 겨울 2만마리 가까운 철새가 찾아오면서 탐조객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명소이다. 특히 이날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김다경, 김예지, 김초롱, 강태이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한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빗돌배기마을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인 '감미로운 마을'. 그 이름처럼 향긋한 단감내음으로 가득한 '감미로운 마을'은 마을의 대표상품인 단감 뿐 아니라 딸기, 수박, 복숭아, 멜론 등 다양한 제철 과일과 농산물 수확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빗돌배기마을은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는 '빗돌'과 아래라는 의미의 '배기'가 합쳐진 '동산 아래 마을'이라는 뜻으로, 그동안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에는 제1회 팜스테이 마을 대상 최우수상, 2012년에는 도농교류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빗돌배기 마을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체험지도사와 함께 빗돌배기 마을의 자랑인 단감으로 만든 단감파이 만들기에 나섰다. 오랜만에 머릿수건과 앞치마까지 두르고 조리대 앞에 웅기중기 모여앉은 회원가족들은 체험지도사의 설명에 따라 파이 주름 하나하나 신경쓰며 파이 만들기에 집중한다. 달콤한 향내를 풍기며 구워지는 파이만큼 회원들의 즐거움도 점점 커져만 갔다.

약자지꼴 한바탕 파이만들기 체험이 끝난 후에는 회원들이 기다리던 부산시립예술단 작은음악회가 펼쳐졌다. 정기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창원까지 달려와준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김다경, 김예지, 김초롱, 강태이가 선사한 멋진 현악앙상블은 겨울의 낭만을 더해주었다. 단원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에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까지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다.

마을주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로 차려

낸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마을의 또다른 명물인 전기차를 타고 동네 한바퀴를 돌아본 후 이번 테마여행의 목적지 주남저수지로 향했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 201-1호 고니,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 199호 황새 등 천연기념물 16여종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10여종 등 93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찾고 있는 주남저수지는 11월경이면 각종 철새 20여종 수만 마리가 월동을 위해 찾아들어 곡예비행을 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주남저수지는 현재 랍사르협약의 등록습지 기준에 상회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두루미류의 중간 기착지 및 재두루미의 월동지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주남저수지에 도착한 정기회원들은 우선 지난 2008년 제 10회 랍사르총회의 창원 개최에 맞추어 랍사르협약(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해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개관한 랍사르문화관을 방문했다. 생태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영상실에서 홍보영상



을 관람한 후 제방에 조성된 전망대에 올라 직접 탐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철새의 서식환경을 교란시키는 탐조행위와 더불어 주남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져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매년 주남저수지를 찾고 있는 철새들이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고 한다.

람사르협약의 역사와 주요내용을 전시하고 있는 람사르문화관과 주남저수지의 생태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표본액자와 박제, 영상물 등으로 꾸며진 생태학습관까지 모두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주남저수지에서 마련한 특별이벤트 '떡메치기 체험'까지 마치고 주남저수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예술과 소통했던 12월 테마여행. 저물어가는 2015년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2월 테마여행은 설 연휴관계로 쉽니다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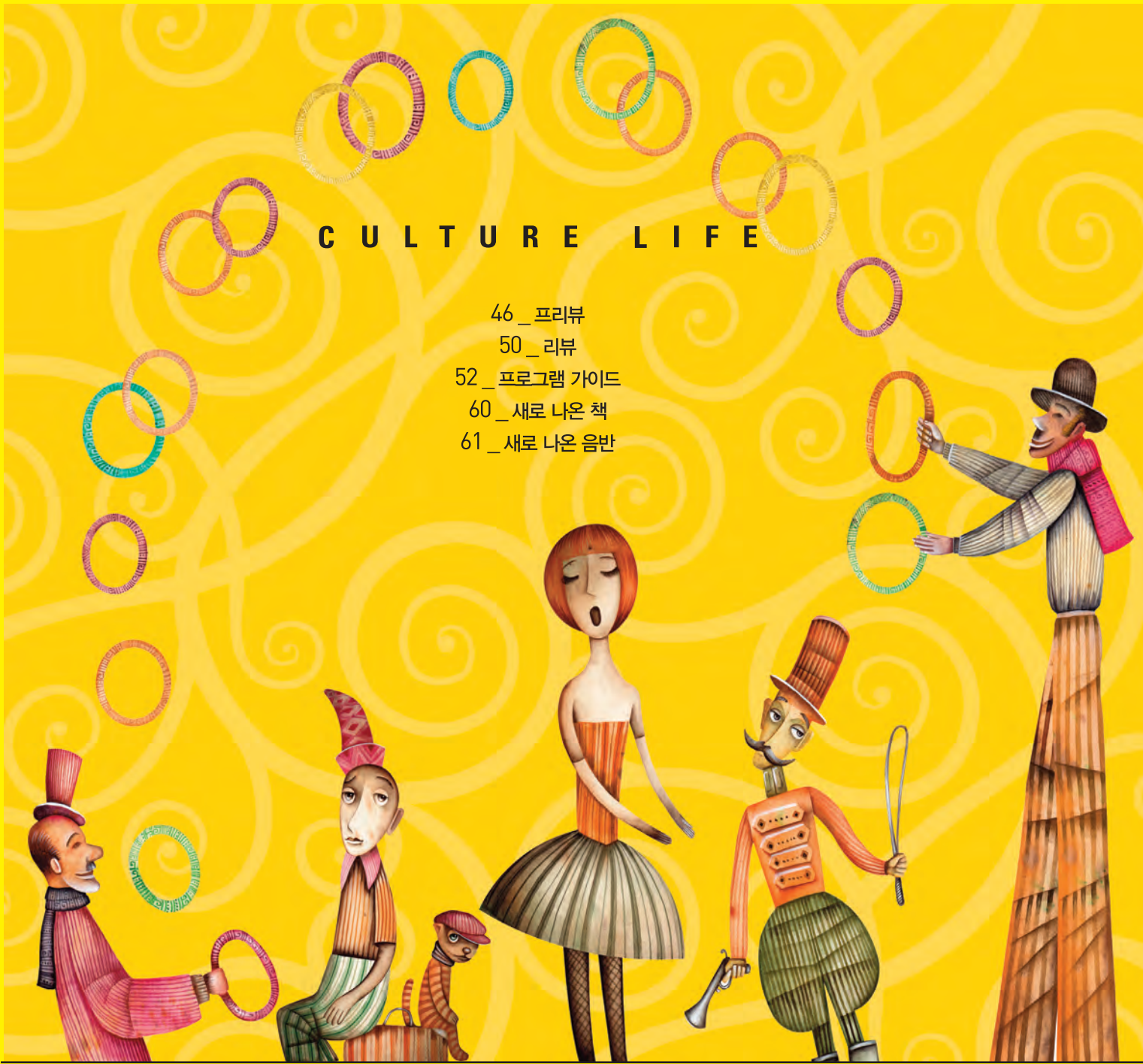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엽서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 홈페이지 /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0)



CULTURE LIFE

- 46 _ 프리뷰
- 50 _ 리뷰
- 52 _ 프로그램 가이드
- 60 _ 새로 나온 책
- 61 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숭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뜨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6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1.12(화)~14(목) 오전 10:30,
15(금) 오전 10:30, 오후 3: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악기가족이야기



지휘자 이현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해설과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어린이 맞춤 음악프로그램 2016 어린이음악회 '피터와 늑대'가 1월 12일부터 나흘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2015 어린이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상상클래식: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로 널리 알려진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음악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0세기 러시아의 세계적인 음악가 프로코피에프가 1936년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가 모스크바 어린이극장 공연을 위해 직접 이야기를 구상하고 작곡한 작품이다.

어린이를 위한 작품인 만큼 교육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었던 프로코피에프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등장인물을 악기로 소개한다. 주인공인 소년 피터는 현악 4중주, 피터의 친구인 새는 플루트, 오리는 오보에, 고양이는 클라리넷,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호른, 사냥꾼은 팀파니가 맡아 이야기 흐름에 따라 악기가 일정한 선율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악기와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어린이들의 클래식 입문을 위한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피터와 늑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악기의 종류와 음색을 알아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서울오페라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현수의 객원지휘로 어린이 관객들과 만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코치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오케스

트라 지휘과를 졸업한 이현수는 그동안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란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두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니거로데 오케스트라, 코로이서스 오케스트라 등 유럽의 다수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했으며, 베를린 현대음악 페스티벌 위촉 지휘자, 독일 함부르크 엘베극장 창작뮤지컬 다스 분더 폰 베른 코치 및 지휘자로 활동했다. 헝가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2등으로 입상하기도 한 이현수는 독일 오페라극장 상임지휘자 어시스턴트, 베를린 국립음대 페터 마우스 클래스 음악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음악회 나래이션은 부산시립극단 단원 오희경이 맡아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입장료 균일 2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2016 제11회 부산국제음악제

1.18(월)-24(일)
부산문화회관 대·중극장



음악감독 백혜선

민간주도형 국제음악제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 2016 부산 국제음악제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국제음악제는 올해 11회를 맞아 '승화로의 여정-열정, 고뇌, 그리고 환희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우선 올해 부산국제음악제에서는 열정과 패기, 참신함을 겸비한 차세대 음악가를 만날 수 있다.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 출신으로 2015 퀸엘리자베스콩쿠르 1위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을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인터내셔널 저먼 어워드와 방돔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우수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한국 클래식기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기타그룹 피에스트 콰르텟이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국내외 거장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거장의 실내악'에서는 관록과 여유를 가진 실내악의 달인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현악4중주단 보르메오 콰르텟의 리더인 니콜라스 키친과 첼로주자 이선 김을 주축으로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이자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백혜선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 연주자 시대를 연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숙, 솔로리스트와 실내악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이자 현재 강남대학교, 독일 바이마르음악학부 교수로 있는 에르완 리샤, 그만의 독특한 첼로 교수법으로 유명한 클라라 민혜 김 줄리어드 예비학교 교수가 합류해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에서는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들이 부산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BMF오케스트라, 부산지역 성악가, 합창단이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올해 부산국제음악제에서는 이들 연주자들 외에도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실내악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신년음악회 협연자로 부조니 콩쿠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수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비오 비디니를 비롯해 호넨스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한 한국 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 한국 피아노 음악의 대모 신수정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빼어난 피아노 교수법으로 각광받는 미국 맨하탄음대 교수 필립 케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명교수로 각광받고 있는 일본 음악계의 대부 고이치로 하라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장, 부산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부산대학교 교수, 연주자이자 지휘자, 교육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바이올리니스트 라두 블리다 영국왕립음악원 교수 등이 올해 초청연주자로 부산관객들과 만난다.

2016 부산국제음악제는 1월 18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 콘서트 시리즈가 펼쳐진다.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6회 정기연주회 2016 신년음악회

1.21(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세이코 김

악장 나오토 사키야

2015 제야음악회로 올미년 한해를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21일 2016 신년음악회로 희망찬 새해를 연다.

국제 니콜라이 말코 콩쿠르 우승자로 일본에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지휘자 세이코 김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가나가와 필하모닉 악장인 나오토 사키야를 함께 초청,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맞는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들려준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테크닉의 지휘자 세이코 김은 14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탕글우드음악센터에서 세이지 오자와를, 빈국립음대에서 레오폴트 하거, 요지 유아사를 사사했다. 1997년 오사카 심포니와 데뷔 무대를 가진 세이코 김은 그동안 객원지휘자로 NHK 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도쿄 심포니, 뉴 저팬 필하모닉, 나고야 필하모닉, 오사카 필하모닉, 저팬 센츄리 심포니, 콘스탄츠 서남독일 필하모닉 등을 이끌었다. 지난 2013년 벨기에 플랑드르 심포니 수석지휘자로 성공적인 임기를 마친 세이코 김은 최근 요코하마 지역의 가나가와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로 있으며 젊고 재능 있는 음악인들로 구성된 '카메라타(Camerata)' 앙상블의 창단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객원 지휘자 세이코 김과 함께 부산을 찾는 바이올리니스트 나오토 사키야는 그동안 도쿄 필하모닉, 교토 심포니, 가나가와 필하모닉, 바젤 심포니, 노보시비르스키 필하모닉 등과의 협연무대로 독주자로서의 재능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베루스(Verus) 스트링 콰르텟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하며 2008년 메뉴인 ARD 국제음악콩쿠르 현악4중주 부문, 2011년 오사카 국제실내악콩쿠르와 페스타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팬들과 만나오고 있다.

2016년 신년음악회 첫 무대는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이 곡은 베토벤이 이탈리아 무용가 비가노의 발레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그가 작곡한 두 곡의 발레음악 중 하나이다. 베토벤 교향곡 제1번과 제2번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음악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제1번과 매우 비슷하며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은 베토벤 초기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형식적인 균형이 잡힌 명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교향곡 제3번 '영웅'과 제5번 '운명' 사이에 끼어서 작곡가 슈만으로부터 '두 명의 북구거인 사이에 끼인 그리스미인'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 교향곡 제4번은 베토벤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여성적이면서도 서정적이고 유머와 위트가 가득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 신년음악회의 마지막 무대는 차이코프스키의 '운명교향곡'이라 불리는 교향곡 제4번이 장식한다. 차이코프스키 6곡의 교향곡 중 가장 정열적인 작품으로 악상 변화가 풍부한 이 작품은 제1악장 첫머리에 연주되는 '운명'의 선율이 전곡을 통일하고 각 악장 모두 인생의 의미를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우리춤 산책

1. 22(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우리 춤에 대한 열정과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6년 우리춤 산책'이 1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살풀이를 비롯해 소고춤, 도살풀이, 화선무, 진도북춤, 원향지무, 허튼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첫 무대는 단원 이현주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된 '살풀이(한영숙류)'를 선보인다. 우리나라 민속춤을 대표하는 '살풀이'는 한국무용의 특징인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춤사위로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꼽힌다. 이어지는 무대는 농악에서 벅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소고춤(최중실류)'을 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창규와 허태성, 최의옥, 김윤호, 강모세의 반주, 단원 김주연의 춤사위로 만나볼 수 있다.

단원 이화성은 경기도당굿 12거리 중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의식무로 외부로부터 액을 막아주고 축원을 하는 '도살풀이(김숙자류)'를 선보인다. '도살풀이'는 경기도 지방에서 살풀이춤을 일컫는 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석단원인 안주희는 창작춤 '화선무'로 관객들과 만난다. 꽃부채를 들고 추는 화선무는 한국 전통춤의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즉흥적인 춤을 허튼가락의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단원 김수잔과 박세준이 함께하는 '진도북춤(박병천류)'에 이어 단원 이현정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인 원향 엄옥자 선생의 독창적인 춤 '원향지무'를 선보인다. 북을 어깨에 메고 양 손으로 북채를 잡고 추는 진도북춤은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섬세함이 조화를 이룬 춤이며, 영남지역에 전수되는 춤의 진수를 집대

성한 '원향지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기교를 바탕으로 흥과 멋, 태를 고루 갖춘 생명력 넘치는 춤이다.

마지막 무대는 이창규, 허태성, 최의옥, 김윤호, 강모세의 반주에 맞춰 단원 황동하가 추는 '허튼춤'이 장식한다. 춤꾼마다 다른 멋과 기교를 부리며 추는 '허튼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정해진 순서 없이 자기의 멋을 넣어 추는 즉흥적인 춤이다.

[프로그램]

- 살풀이(춤/이현주)
- 소고춤(춤/김주연, 악사/이창규, 허태성, 최의옥, 김윤호, 강모세)
- 도살풀이(춤/이화성)
- 화선무(춤/안주희)
- 진도북춤(춤/김수잔, 박세준)
- 원향지무(춤/이현정)
- 허튼춤(춤/황동하, 악사/이창규, 허태성, 최의옥, 김윤호, 강모세)

입장료 균일 5천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07, 3154

오페라 '마술피리' 음악의 힘으로 기꺼이 나아가리

신설령 음악평론가

오케스트라가 오페라 서곡을 연주하고 무대가 펼쳐진다. 첫 번째는 귀가 반응을 한다. 그동안 봐왔던 오페라에서 성악가들의 열연에 비해 조금은 부족했던 오케스트라 음향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음악에 즐거이 집중하게 된다. 커튼이 올라가고 1막의 무대가 펼쳐졌다. 왕자 타미노가 등장하고, 시녀들이 나타나고, 뱀으로 분장한 무용수들이 나타나고 새잡이 파파게노가 등장하는 첫 장면 무대가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귓가에 들리는 모차르트의 선율은 지극히 고전적이면서도 시야에 들어오는 무대장면은 현대극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낯설게 여겨지는 시각적 느낌은 첫 장면이 지나면 사라지고, 무대는 극이 진행되면서 <마술피리>에서 보여주는 동화적인 요소도, 경건한



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사제들의 제의의 모습도, 신비함도, 웅장함도, 환상적인 아름다움도 모두 담아낸다. 단지 몇 개의 반원형 기둥을 다양한 조합으로 변화시키고 거기에 조명을 더함으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를 만들어낸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누구나 즐겨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길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도 보이고, 자신의 짝을 찾는 새잡이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희극적인 장면도 있으며,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있는 악한 자를 괴롭히는 역할을 맡은 악당도 등장시켜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징슈필인 <마술피리>는 대사 부분이 많아 관객의 이해도 돕고 지루함도 덜어준다. 모차르트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청중이 모두 만족한 작품을 쓰려고 애쓴 흔적이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사회적 계층에 따른 취향의 차이를 허물고자 한다. 그가 피아노 협주곡을 새로 쓰고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새 곡이 “식자층도 만족시키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만족할 겁니다”라고 썼듯이….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은 더할 나위 없다. 잘생긴 왕자답게 미성의 타미노, 밤의 여왕의 딸 역할을 아름다운 음색과 연기로 표현하는 파미나,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파파게노, 그리고 자라스트로, 악역의 모노스타토스, 파파게나 등 모두 제 역할을 십분 발휘하였다. 밤의 여왕 역은 콜로라투라의 높은 기교를 요구하며, 그리고 대중의 귀에 꽤 익숙한 아리아들로 인해 비교당하기 쉽지만 역할을 능숙하게 감당하였다.

오페라 <마술피리>를 주관한 부산시립예술단은 놀라운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탁월한 오케스트라, 많은 장면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관객에게 그 역량을 각인시킨 시립합창단,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인 세 요정, 여기에 노예 역을 맡았던 시립극단단원들의 연기는 연극적 재미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극의 완성도는 한껏 높아지고 관객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오페라를 기대하고 싶다.

이 오페라에서 파미나와 타미노의 2중창 '음악의 힘으로 기꺼이 나아가리'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온다. 리브레토를 쓴 쉬카네더의 생각일까? 아니면 모차르트의 의도일까? 모차르트의 경우 리브레토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던 작곡가로 알려진다. 당시 계몽주의와 개혁의 정신을 추구했던 프리메이슨에 동참했던 모차르트. 그는 음악의 힘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이 노래를 통해 말하고자 하였을까?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 중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다. 문화예술 공연은 새로운 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오페라는 어떻게 보였을까? <마술피리>라는 동화적인 제목과 함께 자기들 또래의 요정들이 나오는 장면도 있어 나름 동화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미래의 공연예술 수요자가 될 그들이 만족할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부산시립극단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사랑, 무르익다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지금부터 대략 2천 5백년 전쯤 그리스, 의례의 주관자인 제사장에게 걱정이 생겼다. 사람들은 의례에 관심이나 있을까? 의례에 무관심한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신성을 모독하면 흉년이 든다고 걱정했다. 흉년은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만의 걱정이었다. 흉년을 원하는 사람이란 진정 없었기에 모두가 의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신성숭배는 표현해야 그 의미가 돌아난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은 이를 의례화하고 축제화하였다. 그 표현을 정제화한 결과가 바로 연극이었다. 삶의 원초적 모습에 가장 근접한 형식 즉,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예술로 보여준 형식이 연극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립극단이 공연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2015년 12월 17일 관극. 이하, <베로니카>)는 원초적 연극정신에 근접한 공연이었다. 죽고자 결심한 지점에서 사랑을 얻는다는 <베로니카>의 내용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술로 바꿔버린 원초적 연극정신에 다가간 것이었다. 원작이 소설이었기에 보통의 희곡보다 사건과 갈등이 복잡다단하여 연극으로서의 집중도가 다소 산만했던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버린 평범한 인간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혼돈의 상태를 표현할 목적이었겠지만 무대장치도 지나치게

복잡했다. 하지만, 음향(이영재)과 조명(조세현)은 <베로니카>를 조화로운 연극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미디어 파사드 조명 기법과 공광 거리며 객석 사이를 이동하는 음향은 혼돈의 심리와 우왕좌왕하는 정신병원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배우들이 움직이는 무대 그 위로 빔을 쏘 미디어 파사드는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심리적 기계장치이면서 조명기능까지 담당했다. 다만, 무대의 색채를 단순화하여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더 확연히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양지웅 연출은 첨단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베로니카>를 디지털 연극으로 한층 더 다가가게 하였다. 디지털 연극을 지향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정밀한 디지털 연극 만들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디지털 연극은 모노드라마를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점을 상기해야한다.

<베로니카> 후반부에서 이혁우는 작품의 긴장과 이완을 주도하였다. 닥터 황창기는 의상변화와 감정변화를 동반시켰는데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남자간호사(채민수)와 수간호사(엄지영)는 작은 폭발정도의 평범한 역할이었지만 연기력은 내입클로버였다. 엄지선은 정물화 속에서 복층심리를 드러내고픈 미묘한 심리를 가진 안다정 역할을 섬세하게 보여주었다. 적은 대사 속에서도 감정표현의 가능성을 확연히 드러낸 서희정과 파스(farce)적 요소를 확연히 구축한 이돈희, 다양한 목소리 연기에 변함없는 익숙함을 보여준 정행심의 연기 또한 자살 실패 후 깨어난 여주인공의 남은 인생 일주일을 탄탄하게 기록하였다.



부산시립극단 2015년 마지막 정기공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제12회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함께

일 시 | 1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010-8633-4792



부산, 경남지역의 플루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플루트연합의 열정 넘치는 음악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의 무대.

지난 1999년 인터넷 카페 '플루트모임'에서 출발, 2003년 인터넷 플루트연합 '리더스플루트앙상블'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은 그동안 11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규림병원 봉사연주회,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가족음악회, 기아대책본부 초청연주회, 2015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현재 미국 린지 윌슨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조완수의 지휘로 클래식에서부터 영화 OST,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협연/테너 이태웅 • 특별출연/피아노앙상블 'VACE'

2016 부산국제음악제

일 시 | 1월 18일-19일 월-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22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최장수 민간주도형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한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인 2016 부산국제음악제.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국제음악제는 올해 11회를 맞아 '승화로의 여정-열정, 고뇌, 그리고 환희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8일(월)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코랄 환타지'



2015 퀴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1위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파비오 비디니,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인 피아노 여제 백혜선과 부산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BMF오케스트라, 부산지역 성악가, 합창단이 펼치는 부산국제

음악제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 리스트/피아노협주곡 제1번 작품 23
- 멘델스존/바이올린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 베토벤/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 환타지'
- 지휘/고이처로 하리다
- 연주/BMF오케스트라(박정/김동욱)
- 협연/피아니스트 파비오 비디니,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피아니스트 백혜선, 소프라노 김경희, 테너 이철성, 바리톤 조현수, 샌텀합창단, 부산연합합창단

19일(화) 거장의 실내악 1



미국을 대표하는 현악4중주단 보르메오 콰르텟의 리더인 니콜라스 키친과 보르메오 콰르텟의 첼로주자 이선 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숙,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김동욱 부산대학교 교수, 솔로리스트와 실내악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일 출신의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사, 그만의 독특한 첼로 교수법으로 유명한 민헤 클라라 김 줄리어드 예비학교 교수 등 국내외 거장들의 환상적인 앙상을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거장의 실내악' 첫 번째 무대.

슈만이 '베토벤 이래 가장 뛰어난 피아노 3중주'라고

평한 멘델스존의 피아노3중주 제1번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연주해달라고 유언했던 슈베르트 현악5중주 D.956을 들려준다.

21일(목)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인 최초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우승, 방동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1위 수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스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무대.

[프로그램]

그린펠트/박쥐' 서곡에 의한 패러프레이즈 '빈의

저녁' 작품 56

모차르트/피아노소나타 제10번 다장조 K.330 라벨/라 발스

스트라빈스키/피아노를 위한 '페트루슈카' 라흐마니노프/피아노소나타 제2번 내림나단조 작품 36(1931에디션)

22일(금) 기타콰르텟 '피에스타' 콘서트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남성 기타리스트 김진택, 고익석, 이노영, 김현규로 구성된 클래식 기타그룹 피에스타(Fiesta)가 선사하는 클래식기타의 향연.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발레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고스/카르멘 환상곡 보케리니/서주와 판당고 등 수곡

24일(일) 거장의 실내악 2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 백혜선과 보르메오 콰르텟의 리더인 니콜라스 키친, 악장 이선 김, 재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앙상을 무대로 펼쳐지는 '거장의 실내악' 두 번째 무대.

실내악의 묘미와 감동을 한층 더해줄 베토벤 최고의 걸작 피아노 3중주 '대공'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나장조 작품 18을 들려준다.

김보경, 강혜수 피아노 듀오 콘서트

일 시 | 1월 10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병진 010-5137-2881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Piano Performance, Doctor of Musical Arts, 위스컨신 매디슨대학교에서 Piano Pedagogy and Piano Performance, Master of Music, 이스턴미시간대학에서 Piano Performance, Bachelor of Music, Dean's List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김보경과 Trinity college of London에서 Associate piano recital diploma, Licentiate piano recital diploma, Fellowship piano recital diploma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강혜수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 라장조 KV.44
 피아졸라/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탱고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작품 1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6 어린이 음악회 '피터와 늑대'

일 시 | 1월 12일~14일 화~목요일 오전 10:30,
15일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해설과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어린이 맞춤 음악프로 그램 2016 어린이음악회 '피터와 늑대'. 현재 서울오페라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현수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로 유명한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음악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0세기 러시아의 세계적인 음악가 프로코피예프가 1936년 작곡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어린이들의 클래식 입문을 위한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 지휘/이현수
- 나래이션/오희경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일 시 | 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으로 마련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6번'. 프랑스 (르 몽드)지로부터 '영적인 지휘자'라고 극찬받은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말러 사이클' 중 '교향곡 제6번'을 들려준다.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말러 교향곡 제6번은 '말러의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자 예언적인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에서도 비극적 분위기가 가장 극에 달한 작품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말러 사이클' 중 '교향곡 제6번'을 들려준다.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말러 교향곡 제6번은 '말러의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자 예언적인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에서도 비극적 분위기가 가장 극에 달한 작품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6회 정기연주회

2016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국제 니콜라이 말코 콩쿠르 우승자로 일본에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지휘자 세이쿄 김(Seikyo Kim)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2016 신년음악회.

지휘자 세이쿄 김이 수석지휘자로 있는 가나가와 필하모닉의 악장인 나오토 사키야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이 묻어나는 연주곡으로 새해를 맞는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 베토벤/교향곡 제4번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 객원지휘/세이쿄 김
- 객원악장/나오토 사키야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6 우리춤 산책

일 시 | 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07, 3154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6년 우리춤 산책'.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인 살풀이를 비롯해 소고춤, 도살풀이, 화선무, 진도북춤, 원향지무, 허튼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살풀이(춤/이현주)
- 소고춤(춤/김주연, 악사/이창규, 허태성, 최의욱, 김윤호, 강모세)
- 도살풀이(춤/이화성)
- 화선무(춤/안주희)
- 진도북춤(춤/김수잔, 박세준)
- 원향지무(춤/이현정)
- 허튼춤(춤/황동하, 악사/이창규, 허태성, 최의욱, 김윤호, 강모세)

UKYO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UKYO오케스트라 010-3863-3087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010년 8월에 창단된 순수 민간 청소년 자선 단체 오케스트라인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이하 UKYO)의 신년음악회. 부산, 경남지역에 재학중인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UKYO는 전문 지휘자와 각 파트별 강사들의 지도아래 매년 2~3회 정기연주회와 다수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왔다

- 지휘/전영수
- 합연/박서현(플루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회
'동물의 사육제'**

일 시 | 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6, 3105)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회 '동물의 사육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은정과 인제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김성경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해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과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곡으로 꼽히는 생상스의 관현악모음곡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 지휘/김범수(수석지휘자)
- 협연/이은정(피아노,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단원), 김성경(피아노)



부산민예총 춤위원회 발족 공연 여기에 움 트다

일 시 | 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민예총 807-0490~1

...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5여명의 춤꾼들로 발족한 부산민예총 춤위원회의 2016년 첫 프로젝트 무대 '여기에 움 트다'. 춤 시장의 축소와 다른 예술문화의 발생으로 그 활동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해온 부산민예총 춤위원회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

움(현대무용), 모신의 춤(한국무용), 지전춤(한국무용), 틈(현대무용), 소고춤(한국무용), 여기에 움 트다(창작무용)

• 예술감독/강주미(춤배바람)

• 연출/신상현(연출가) • 기획/강정일(안무가)

• 출연/방영미, 김경미, 강주미, 강정일, 신상현, 김경미, 최혜리

뮤지컬 '베르테르'

일 시 | 1월 29일 **금요일** 오후 8:00, 30일-31일

토-일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WSM 1566-5490

...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한 남자의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사랑을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그려낸 뮤지컬 '베르테르'. 지난 2000년 초연 이후 관객 25만명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베르테르'는 2016년 창

작 15주년을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시즌에 걸쳐 '베르테르'를 맡아 싱크로율 100%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엄기준을 비롯해 13년만에 다시 돌아온 '베르테르'의 전설 조승우,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뮤지컬배우로 자리매김한 규현 등 세 명의 베르테르가 3인 3색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작/고선우 • 연출/조광화

• 출연/엄기준, 조승우, 규현, 전미도, 이지혜 외

비다엠클래식 초청시리즈

MUIN Trio 부산연주

일 시 | 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비다엠엔터테인먼트

070-7163-2200, 2211

...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으로, 바흐솔리스트서울 바로크 오케스트라 수석, 화첼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운형과 앙상블 탐베노바 멤버, 이화첼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소영, Duo ARITTA, 앙상블 이레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

트 정희진으로 구성된 뮤인 트리오(MUIN Trio)의 무대.

단체명인 'MUIN'은 'Music of Inspiration'의 'MU'와 'IN'을 합친 단어로 연주자들의 영감을 담은 음악이 자 듣는 이에게는 영감을 일으키는 음악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드뷔시/피아노 트리오 사장조

N. 카푸스틴/피아노 트리오 제1번 작품 86

림스키 코르사코프/피아노 트리오 다장조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월 9일 다원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국악의 저변확대와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다원국악관현악단의 무대.

[프로그램]

남도굿거리, 대풍류, 육자백이, 동백타령, 금강산 타령, 아름다운 나라, 난감하네

1월 16일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과 함께하는 '영화음악 신책'

...

지난해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과 함께하는 '영화음악 신책'.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하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소규모 챔버 오케스트라에서부터 현악앙상블, 현악사중주, 피아노트리오 등 다양한 편성으로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팝, 국악과의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Mission: IMpossible Theme(미션임파서블), 인생의 회전목마(하울의 움직이는 성), Between Calm and Passion(냉정과 열정사이), Jazz Suite no.2 Waltz(번지 점프를 하다) 등 수곡

1월 23일 해피앙상블 연주회

...



지난 2002년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해외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로, 현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초빙교수 및 외래교수들로 구성된 해피앙상블의 무대.

남녀노소 음악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나누고자 창단한 해피앙상블은 클래식한 목소리로 예술합창에서부터 성가곡, CCM, 대중음악 및 가곡, 민요, 영화음악, 팝송, 동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애국가(안익태 곡), 우정의 노래(R. Wagner 곡), 우리들은 미남이다(해피앙상블 편곡), 코시코스의 우편마차(H. Neck), 카레(이영준 곡), 눈(박재훈 곡), 창밖을 보라(미첼 곡), 소나무(독일민요) 등 수곡

1월 30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지난 1993년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 우리 전통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의 무대.

[프로그램]

처용무(출연/박상용, 이성원, 이정식, 김병주, 강모세) 원형지무(출연/이현정)

소고춤(출연/김공주, 허태성)

남무(출연/장영진)

장고춤(출연/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경고춤(출연/박창희, 박미나)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무지크바움 실내악 전용홀 개관 기념 갈라콘서트

일 시 | 1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그동안 수많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이 지난해 12월 실내악 전용 음악홀을 개관하면서 마련한 개관 기념 갈라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트럼페터 박승훈, 피아니스트 이혜경과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비올리스트 김가민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솜블리 트리오, 피아니스트 정재은이 출연, 무지크바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6일, 1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20일 A-ri 프로젝트 앙상블 솜블리 트리오 'Tango in Piazzolla'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혜경,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무동 음악원, 뷁와시 음악원, 베르사이유 국립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리더,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숙명여자대학교 관현악과와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 중 귀국,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외래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민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솜블리 트리오의 무대. 'Tango in Piazzolla'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탱고의 역사, 아디오스 노니노, 오블리비

언, 리베르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등 피아졸라의 작품을 들려준다.

27일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과 함께하는 'Storytelling in music'



부산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연주 단체인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의 무대.

지난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지휘자 없이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통해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매

력을 전해주고 있다.

프로그램

그리그/홀베르크 모음곡 중 '프렐류드'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왈츠'
드보르작/유모레스크

엘가/사랑의 인사

브람스/헝가리무곡 제5번 등 수곡

- 바이올린/정운봉, 유해진, 정하수, 서혜은, 조수현, 전진영, 고소영
- 비올라/박은경, 황영은, 김보람
- 첼로/박준현, 윤주연, 김다영
- 콘트라베이스/윤민우
- 피아노/최영민
- 해설/고민지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왈츠와 폴카의 숨바꼭질 여행

일 시 |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지난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해 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왈츠와 폴카의 숨바꼭질 여행.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50회 이상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부드러운 왈츠와 흥겨운 폴카로 2016년 한해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각 곡들에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들을 통해 왈츠와 폴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관객들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든다.

동래문화회관 가족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일본 최고의 플루티스트 타치바나 치하루 초청으로 마련되는 동래문화회관 2016 가족 신년음악회. 맑고 고운 음색의 플루티스트 타치바나 치하루는 프랑스 아르르국제실내악 콩쿠르 1위, 이탈리아 시링크스 국제플루트콩쿠르 1위를 수상했으며 현재 센조

쿠, 우에노 음악대학과 일본대학 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타치바나 치하루 외에도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황미리, 성기업, 바이올리니스트 흥기정, 비올리스트 성정인, 첼리스트 우리라, 피아니스트 박필은, 소프라노 정재연이 출연, 다채롭고 풍성한 연주를 들려준다.

- 해설, 진행/김윤선(음악평론가)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12th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1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를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상공회의소 총무관리팀 990-7042~7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2016년 첫 무대.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라 무지카 앙상블 리더, 토리스하우스콘서트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협연으로 2016년 힘찬 출발을 알린다.

프로그램

엘가/사랑의 인사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수곡



Play 연극

연극 '셜록홈즈'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추리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셜록홈즈'.
외딴 성에서 벌어진 재상가의 자살 사건. 하지만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문의 편지가 홈즈에게 배달되고 추리는 시작된다. 연극 '셜록홈즈'는 스피디한 스토리 전개와 효과적인 무대장치를 통해 스릴과 반전이 있는 추리극의 재미를 전해준다.



로맨틱 코미디극 '사랑이 온애어'

일 시 | 2015년 10월 22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12/25~26일 오후
3:00, 6: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초콜릿팩토리 621-4005

...



2004년 최고의 시트콤이었던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무대에 옮긴, 사랑에 대한 유쾌한 수다 로맨틱 코미디극 '사랑이 온애어'.
서른 두 살이라는 나이에든 순수끼로 따지자면 국가대 표급인 최미자, 실수투성이 인생에 불평과 주름만 늘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지루한 일상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발생한다.
그건 바로 미자가 성우로 일하는 방송국에 기력지도 싸가지도 지존인 지PD에게 제대로 꽂혀버린 것. 과연 미자는 왕새까지 꽃미남 지PD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특히 소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영상과 와이어를 통한 마술같은 무대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일 시 | 2015년 10월 29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12/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있는 휴먼코미디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대와 영원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주인공 진우처럼 '죽음'이라는 소재 속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와 위트있는 상황으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 작, 연출/김기석

• 작곡, 음악감독/윤영식, 지은혜



룸넘버 13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2016년 2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12/31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국회 회기 중에 눈이 맞은 여당 국회의원 리처드와 야당총재 여비서 제인이 호텔 방에서 막 일을 치르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이 일을 국회의원 비서인 조지에게 떠넘겨려 한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만 가고 리처드와 제인은 과연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2016년 1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31
일 오후 5:00, 8:00, 1/1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디오르플레이터컴퍼니 664-7880

...



탄탄한 구성과 해학을 담은 강력한 웃음코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폭소코미디극 '라이어'.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쿠니의 대표작으로,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해 가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빠른 극 전개

개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지금도 유럽을 비롯 전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라이어'는 국내에서만 18년째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무대로, 매년 한국 연극사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연극 '어바웃타임'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2016년 1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3일간의 사랑이야기 연극 '어바웃타임'.

결혼을 앞둔 상민, 화영커플은 결혼준비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게 되고 헤어지는 순간 상민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 상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영은 늘 만 나던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 때 곁에 있던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단 3일간 상민을 볼 수 있는 부활을 받게 되는데...

• 작/이민혁

• 연출/박정우

연극 '우리가 사랑할 때'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2016년 1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12/31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나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공연창작집단 팻브리치 626-3703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사랑 가득한 연극 '우리가 사랑할 때'. 남자의 스펙에 집착하던 언니 미영은 여행에서 만난 취불도 없는 연하남 춘배와 사랑에 빠지고 주인공인 선영은 감정표현에 서툰고 무뚝뚝한 부산남자 동욱과 오랜 우정의 결계를 깨버린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지만 어떻게 만나고 사랑했는지는 기억나지만, 왜 싸웠고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들의 사랑. 연애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연애의 모든 것이 배우들의 감정연기와 독창적인 무대연출로 선보인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최재현, 조현규, 손수민, 변은지, 박기림, 이준솔, 표예리

연극 '안녕, 메이트'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2016년 1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번출구**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어느날 찾아온 너무 다른 네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 연극 '안녕, 메이트'. 늘 똑같지만 한 다숨의 병실에 새로운 간병인 정환이 찾아온다. 멋지고 잘 생긴 간병인 오빠를 기다리던 다숨의 기대를 그야말로 산산조각내는 촌스러운 외모의 정환이 등장하면서 서툰고 투박한 그들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한편 솔직하기 그지 없는 지영과 소심하고 집착 강한 상호는 무척 대고 동거에 들어가지만 전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매일밤 설전이 오고간다. 4인 4색의 같은 듯 다른 사랑이야기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진다.

- 작/이민혁
- 연출/박정우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일 시 | 1월 7일(목)~3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2/8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모티브로, 썬타는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풍수가 넘치는 도예가 준희가 2년간 짝사랑해온 차도남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애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작전을 펼쳐나가는 내용을 담은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독특한 캐릭터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속에서 로맨틱 코미디다운 대사와 허를 찌르는 웃음코드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연출/이주영

연극 '회나뭇골 사람들'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2016년 1월 17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초중고생 1만 5천원 (예매시 5천원 할인)
 문 의 | 일터소극장 635-5370



한국 현대문학의 큰 봉우리이자 부산 문단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산 김정환 선생의 동명의 소설을 무대화한 연극 '회나뭇골 사람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절, 300년이 넘는 회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는 회나뭇골을 배경으로, 당시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뇌, 분노와 희망을 한판 굶판으로 펼쳐낸다.

- 원작/김정환
- 작, 연출/김선관
- 출연/김민지, 박형순, 배진만, 서원우, 신현우, 윤순심, 조기정, 하현관
- 소리/조소연
- 작구/장재희
- 피리/김혜지
- 해금/박지연

뮤지컬 '캐스팅'

일 시 | 1월 8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영희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NMD 626-0116



NMD뮤지컬과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이성섭 교수가 2008년 처음 기획한 이후 약 7여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제작을 확정하면서 화제를 모은 창작뮤지컬 '캐스팅'. 꿈을 이루기 위한 가난한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 그리고 사랑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캐스팅'은 코믹하면서도 가슴 찡한 감동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가사로 관객들의 감수성을 뒤흔드는 뮤지컬 넘버,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군무,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극본, 작사/진지숙
- 작곡/최상민
- 연출/이성섭
- 음악감독/전경호
- 출연/노승혜, 이동환, 김도연, 박민지, 박규남, 이종원, 유초롱, 류지희, 배문수, 이동욱 외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시즌 4

일 시 | 1월 8일(금)~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4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초등학교 교사 강의 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텔레파시 초능력자인 인터넷 설비 기사 힘찬. 솔직하면서도 순수한 힘찬의 모습에 빠진 강희는 힘찬을 사랑하게 되고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생각하는 강희는 프로젝트를 기다리지만 변변찮은 직업과 집안 때문에 고객을 망설이는 힘찬, 과연 두 주인공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가슴 따뜻한 스토리와 15곡의 주옥같은 OST, 배우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어우러지는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는 사랑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연애와 다른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려낸다.

연극 **초대_바다 역사를 말하다!**

일 시 | 1월 29일 금요일 오후 8:00, 30일-31일

토-일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대만 극단 Black Dog와의 협력무대로 선보이는 극단 어니언 킹 '초대_바다 역사를 말하다!'.

시간여행으로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한 여자. 여자는 시간여행 탓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자 애쓰는 여자에게 시간여행자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금에 만족할 것을 권하지만 여자는 자신이 존재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결국 시간여행자는 그녀의 기억을 찾도록 허락하지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의 기억만이 그녀를 찾아온다.

권력과 폭력이 부른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닮은 제주 4.3항쟁과 대만의 2.28 사건, 닮은 꼴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의 배우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고자 마련한 '초대_바다 역사를 말하다!'는 아픔의 역사를 아픔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여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 기획/황미애
- 작, 연출/전상배
- 조연출/王少君(Wang Shao Jun)
- 출연/염준필, 彭子玲(Tzu-Ling Peng)

문화판 '모이라'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일 시 | 1월 20일-22일 수-금요일 오후 8:00, 23

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ACTs 010-9701-0712

...

지난해 2월 '김문홍 희곡상' 수상작인 '거기, 두루마음이 있다'로 청단공연을 가진 문화판 '모이라'의 두 번째 무대.

서울 번두리에 위치한 부동산을 배경으로 '이야기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상처와 치유를 그려낸 이번 작품은 '이야기'를 통해 타인으로 존재하던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끈끈한 유대감과 그 속에서 나누는 소통과 치유를 이야기한다.

- 작, 연출/김숙경
- 출연/김은미, 변지연, 양성우, 장애경, 양효윤, 전창국, 홍세영



Event 행사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일 시 | 1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 busan

...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부산일보, 국제신문, 월간객석, 음악저널 등을 통해 평론활동을 펼쳐온 곽근수는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금정수요음악회, MBC목요음악회 등 5천여회가 넘는 다양한 음악회에서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고음악 연주' 제2강에서는 조르디 사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로저 노링턴, 안드레아스 솔 등 이 분야 최고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Display 전시

앤디워홀 라이브(부산)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2016년 3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12세 이하) 7천원

문 의 | 아트몬스터 1522-3763

...

상업적인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의 어휘를 미술로 끌어 올린 팝 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앤디 워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카모플라주 자화상, 해골, 라파엘 마돈나-\$6.99, 베를린 프리드리히 기념비 등 2m가 넘는 대형 작품들과 30년만에 발견된 디지털 작품 등 쉽게 만날 수 없는 희귀작품들을 포함해 그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작은 선물, 큰 기쁨 **김부웅 작품전**

일 시 | 2015년 12월 12일(토)-2016년 1월

12일(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스위트홀 744-1415

...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회원,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있는 화가 김부웅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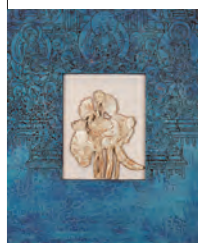
서용 불교미술작품 초대전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2016년 1월

17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0933

...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교수, 중국 북경 중앙미술대학 벽화와 객좌교수, 한국 동향학회 회장으로 있는 작가 서용의 불교미술작품 초대전.

서용은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북경 중앙미술대학 판화과 및 동 대학 벽화과(석사), 중국난주대학 동향학 박사 과정 1기를 졸업하고 그동안 개인전 및 단체전, 국내외 아트페어 등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BNK아트갤러리 초청 **김석호 書展**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2016년 2월 6일(토)

BNK아트갤러리

문 의 | BNK아트갤러리 246-8975

2016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일 시 | 1월 2일(토)-2월 28일(일)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어린이 2만원(1/31일까지)

구매시 어린이 1만 2천원, 일반 8천원

문 의 | 위 플레이 02-548-5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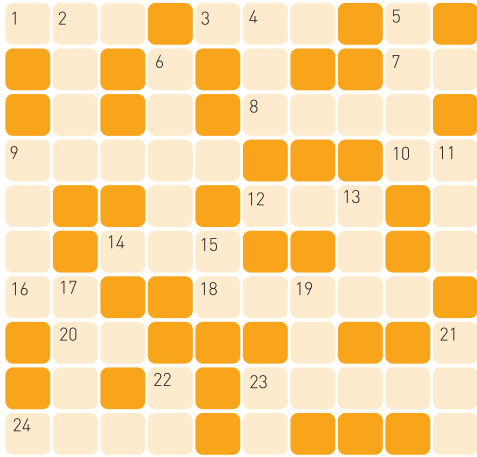
김은기展 'Sweet Winter'

일 시 | 1월 4일(월)-2월 3일(수) **갤러리 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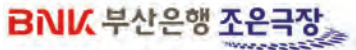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문학동네 | 031-955-8869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큰집 | 051-245-3320 빈센트 커피 | 051-623-0772



시를 쓴다는 것
 다니카와 순타로 / 교육서가



옐로인 플라워



빈센트 커피

가로열쇠

- 1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창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인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 2015년 양의 해, 2016년 ○○○의 해.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
- 종이, 붓, 벼루, 먹 등 학문을 하는 선비가 늘 다루는 네 가지 물건을 벗으로 의인화하여 나타낸 말.
-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Santa Maria delle Grazie)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예수가 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 움직이는 인체를 그린 소묘의 대가로, 특히 발레리나들을 묘사한 회화, 드로잉, 청동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화가.
-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독창곡.
- '부모들의 구세주',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팬틴', '대한민국 아동 애니메이션의 신화' 등 어린이들의 '뽀통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 한강, 낙동강에 이어 3번째로 긴강.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의 신무산에서 발원하여 군산에서 황해로 흘러든다.
- 끈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극 또는 실이나 끈을 달아 위에서 조종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형들의 총칭.
- '순정만화', '아파트', '26년' 등 감성적 소재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장편 서사웹툰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대표 이야기꾼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화가.
- 2014년 하반기에 개봉해 누적관객 340만을 기록하며 다양성 영화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주인공인 배우 키아라 나이틀리와 마룬5의 리더 애덤 리바인이 부른 영화 OST는 개봉과 함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 우주 공간 속에 남겨진 주인공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그린 일론소 쿠이론 감독의 SF 영화. 2013년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었으며,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시각효과상, 음악상 등 총 7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로열쇠

-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창작뮤지컬.
- 국보 1호,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문(大門) 중의 하나로 남쪽의 대문이다. 지난 2008년 방화로 소실되었으나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면서 2013년 5월 4일 복원 완료로 기념하는 완공식을 가졌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영화산업이 각광받으면서 미국 영화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 탄자니아의 북동부, 적도의 남쪽에 솟아있는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으로 지구에서 가장 큰 휴화산.
-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 보개산이 바다 가운데 침몰되었다가 다시 솟아서 이루어졌다다는 전설이 있는 부산 최대의 섬. 곳곳에 산재된 문화유적들로 생태, 문화 관광지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그리스의 수도. 서구 문명의 발생지로, 고전 문명의 많은 지적·예술적 사상이 비롯됐다.
- 이탈리아의 수도. 현대는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 ○○제국의 수도였고, ○○가톨릭교회의 중심지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주로 해남, 완도, 무안, 진도 등 전라남도 해안일대에서 성행된, 노래와 무용, 놀이가 혼합된 부녀자들의 놀이로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해지며 정월대보름날 밤에 하기도 한다.
- 방탕한 남자 오네긴과 순진한 여인 타티아나의 엇갈린 사랑을 담은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소설 '예프게니 오네긴'을 존 크랑코가 발레로 만든 작품.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 입단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7월 이 작품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다.
- 크고 평평한 바위를 몇 개의 바위로 괴어 놓은 고대의 거석구조물. 지석묘.
- 1982년 개봉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공상 과학영화.
-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

지난호 정답



12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보현(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김영권(사상구 냉정로) 박경현(동구 중앙대로) 장경미(동래구 금강로) 한경혜(영도구 태종로700번길)	큰집 식사권	고소자(서구 보수대로258번길) 김경환(해운대구 장산로) 박성연(부산진구 엄광로) 박종은(부산진구 마철로126번길) 이주영(동래구 복천로)
문학동네 도서	김미연(기장군 차성로) 박수민(사하구 고정로) 이승우(금정구 체육공원로) 임성규(북구 산성로) 최미재(남구 유엔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성훈(수영구 광남로) 김태현(사상구 사상로) 박솔아(북구 금곡대로285번길) 신미영(북구 산성로) 이주은(서구 구덕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박복자(사하구 승학로) 박소연(해운대구 해운대로)	빈센트 더치커피	김정설(부산진구 새싹로) 김양순(남구 유엔로)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옛 그림에서 정치를 걷다

허균 지음 / 깊은나무 / 256p / 1만 6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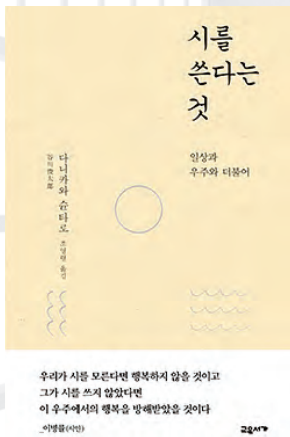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그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풍속화이다. 조선의 풍속화를 소개한 역사교양서도 많이 출간됐고, 서민들의 해학과 낭만을 담은 풍속화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현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조선의 집권층들도 그림을 많이 남겼다. 왕실, 관리, 학자 등이 남겼던 그림들은 풍속화에 비해 딱딱하고 정적으로 다가온다. 그 그림들이 현대인들에게 인기는 없었지만,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역사를 이끈 주역이었다는 점에서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조선 시대 풍속화들이 서민들의 삶을 표현했던 것처럼, 당대의 집권층들이 남겼던 그림은 조선의 정치적 신념과 이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강조한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둘째 형인 수양대군과 왕권을 두고 대립했던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보았던 무릉도원의 모습을 안경을 통해 그리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몽유도원도'다. 이 그림은 안평대군이 구상했던 이상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의 집권층들이 남겼던 그림을 대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림을 둘러싼 무형적 요소들을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조선의 집권층들이 남긴 그림으로 조선을 들여다보자.



❖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강명관 지음 / 휴머니스트 / 347p / 1만 8천 원

서양에서 온 물건을 처음으로 접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신선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소완정 동야소집>이라는 시에서 유리거울에 대해 "서양 거울 맑으니 눈이 어지럽다"라는 표현을 남겼다. 영조는 색 처리를 한 망원경이 임금을 상징하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불경한 물건이라며 부수어버렸다고 한다. 한문학을 현대의 텍스트로 생생히 살려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가 또 한편의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이번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안경, 망원경, 유리거울, 자명종, 양금 등 다섯 가지 서양 물건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서양 근대 문명사에서 그 의미가 큰 이 물건들은,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이 각각 달랐다. 저자는 각 물건이 언제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는지, 조선 사회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물건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과학적·기술적 이해까지 짚어냈다. 다섯 가지 물건의 역사를 통해 조선 후기에 과학, 종교 등 서양 문물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조선 후기의 세계 인식·과학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 시를 쓴다는 것

다니카와 순타로, 조영렬 옮김 / 교유서가 / 160p / 1만 2천 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본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의 에세이집. 1950년, <문학계(文學界)>로 등단한 시인은 1952년에 시집 <20억 광년의 고독>을 출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그림책, 에세이, 번역, 각본, 작사 등으로 폭넓게 작품을 발표했다. 근년에는 연주와 낭독 콘서트를 열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시를 낚는 iPhone 어플 '다니카와', 시를 독자에게 매달 우편으로 보내는 '다니카와 순타로의 시 메일' 등으로 시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60년 넘게 시를 써온 이 시인의 시론이자 노년의 인생 회고담이기도 하다. 일본방송협회(NHK) 위성방송 채널에서 2010년에 방영된 프로그램인 <100년 인터뷰,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책에는 저자 자신의 시혼을 여실히 드러내는 시들과 함께, 그의 시세계에 대한 담담한 소회도 담았다. 시인은 "시대가 얼마나 살벌해지든, 어떠한 시대가 되든, 인간의 혼이 시정(詩情)을 찾는 경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병률 시인은 그의 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시를 모르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시를 쓰지 않았다면 이 우주에서의 행복을 방해받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HMV & 텔렉 레코딩 전집

▶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거장!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1915~1997)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피아노의 거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최전성기 시절을 함께한 HMV(EMI)와 텔렉 시절의 전설적인 레코딩을 모은 전집이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추천 1순위 명반인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와 방랑자 환상곡을 비롯해 슈만의 환상곡과 나비, 피아노 소나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 7, 17번 등 독보적인 해석과 카리스마의 독일 고전 레퍼토리에서 보로딘 4중주단과의 슈베르트 '송어', 올레그 카간과의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실내악 앙상블 녹음, 카라얀과의 베토벤 3중 협주곡과 마타치치와의 그리그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마지막으로 클라이버와의 드보르작 피아노 협주곡에 이르기까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피아노 예술의 진수를 담고 있다. (* 오리지널 LP 커버, 한글, 영문 해설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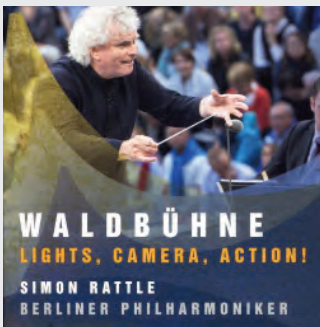


❖ 바바라 보니와 마티아스 괴르네의 '바로크 크리스마스'

연주/바바라 보니(소프라노), 마티아스 괴르네(바리톤),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 아름다운 대성당 안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용 바로크 음악의 향연

1999년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실황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프라이부르크 시내 풍경과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내부의 아름다운 장식들이 간간히 비치는 가운데 바로크 시대의 걸작들이 노래된다.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당연히 필수 레퍼토리이며, 이 곡의 주요 악장들 사이사이에 바흐와 헨델,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들이 배치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 썼거나 그 정신에 부합하는 곡만 선정했으며, 독창을 맡은 바바라 보니와 마티아스 괴르네는 물론 프라이부르크 성당 소년합창단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들려준다. 바바라 보니는 맑고 우아한 미성, 정확한 발음, 뛰어난 곡 해석력, 바로크시대부터 20세기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마티아스 괴르네는 독일가곡의 지존으로 손꼽힐 만큼 정통해석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다.



❖ 베를린 필하모니 2015 발트뷔네 콘서트

연주/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사이먼 래틀(지휘)

▶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영화음악의 향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984년부터 매년 여름 베를린 외곽에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인 발트 뷔네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다. 숲의 우대라는 의미를 가진 독일 베를린의 발트뷔네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원형극장 중 하나다. 2015년의 테마는 '영화음악'으로, 음악회를 시작하는 '20세기 폭스 팡파르'부터 코른골트의 '로빈 후드의 모험', 미클로스 로사의 '벤허 모음곡',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인디애나 존스', 'E.T.', '스타워즈' 등 할리우드를 화려하게 수놓은 여러 작곡가들의 걸작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연주되었다. 스콧 브래들리의 '통과 제리'도 절대 놓치지 말 것. 공연을 보면 이 익숙한 음악이 이렇게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었던가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NEWS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약 체결

부산시립예술단 재능기부,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공연, 공연예술프로그램 공동개발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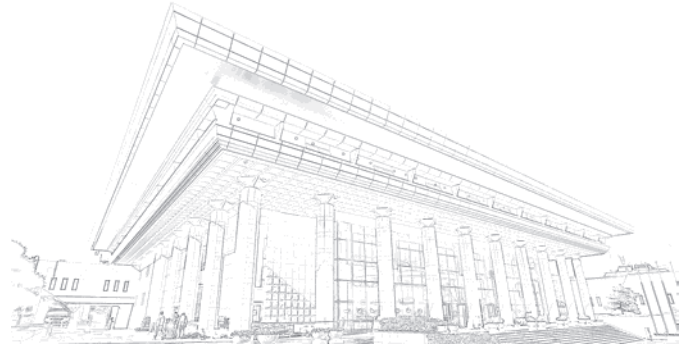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및 교육공동체 정서함양을 위해 12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12월 8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 교육감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부산문화회관이 함께 고민해나가면서 문화예술적 소양, 감성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합의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공연을 비롯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의 재능 기부, 부산시립예술단 리허설 오픈 등 다양한 공연 체험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을 살아있는 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예술축제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락 공연부문 장려상 수상



지난해 첫선을 보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락'이 지난 12월 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국 61개 회원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한눈에 보고 1년간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축제는 부산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통영국제음악재단, 대구남구대덕문화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안산문화재단, 과천시민회관, 안양문화재단, 노원문화예술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고흥문화회관 등 전국 19개 예술회관이 참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상하반기 '열씨구락' 참가자 17명으로 공연팀을 구성한 부산문화회관은 공연부문 장려상을 수상, 큰 박수를 받았다.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락'은 2016년에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 선정 결과에 따라 2월 경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 참가

1월 22일 오전 12:00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의 자매도시 후쿠오카의 대표 공연장인 후쿠오카 아크로스홀 런치타임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후쿠오카시 중심지인 텐진에 위치한 '후쿠오카 아크로스홀'은 1995년 4월 개관 이후 국제, 문화, 정보의 교류거점시설로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환경건축의 선구자로서 전면을 녹음으로 꾸민 후쿠오카 아크로스홀의 계단형 외관은 특히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산처럼 보이면서 후쿠오카의 새로운 심벌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다.

후쿠오카 아크로스홀 런치타임 제 48회 무대를 장식하게 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꿈의 바다', 해금협주곡 '세상풍경',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등 다양한 창작 국악관현악곡과 흥겨운 양국의 민요 메들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정필 수석지휘자를 비롯해 70여명의 연주단이 2박3일의 일정으로 연주길에 오른다. 그동안 아크로스홀 런치타임 콘서트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스 필 앙상블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이 참가해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작·편곡 담당 백규진

부산 최초로 제34회 대한민국작곡상(관현악부문)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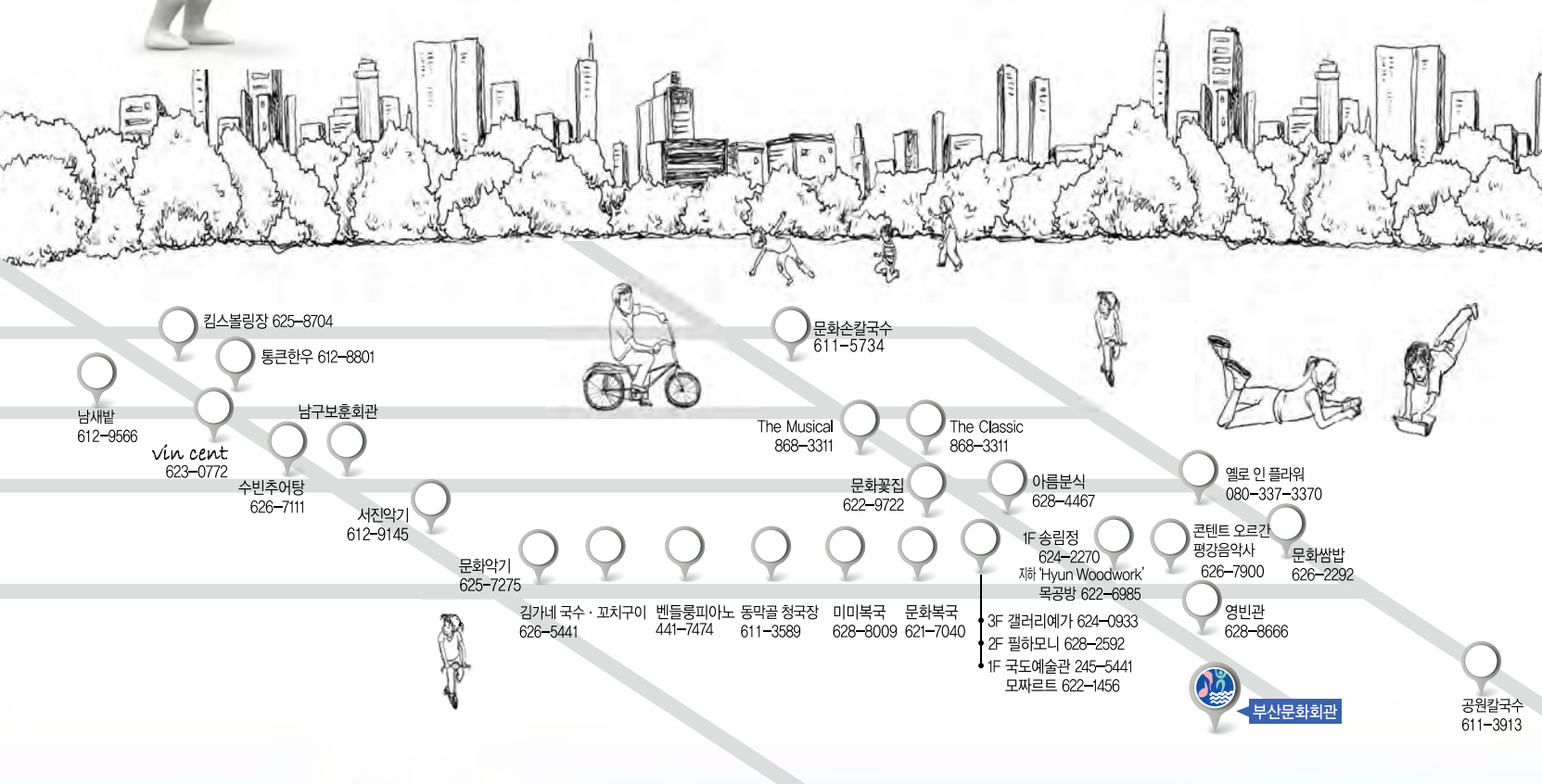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작·편곡 담당 백규진 씨가 부산 작곡가로는 처음으로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작곡상은 한국음악 정착과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1977년 제정된 상으로, 5년 이내 초연작 가운데 선정된다. 역대수상자로는 박범훈, 이상규, 황의종 등이 있다.

수상자 백규진은 2003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 그동안 효원국악관현악단, 부산예술고등학교 지휘자로 활동하며 국악관현악곡, 뮤지컬음악, 무용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발표해왔다. 그의 작품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국립국악관현악단, 전국의 시립국악단등 각 지역별 유수의 단체에서 초연, 재연되고 있다. 이번 수상곡인 '국악관현악 왕의 귀환'은 2012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으로 찬란했던 옛 조선왕조의 모습을 전통 대취타 선율인 무령지곡을 통하여 새롭게 표현한 곡으로 씩씩하고 웅장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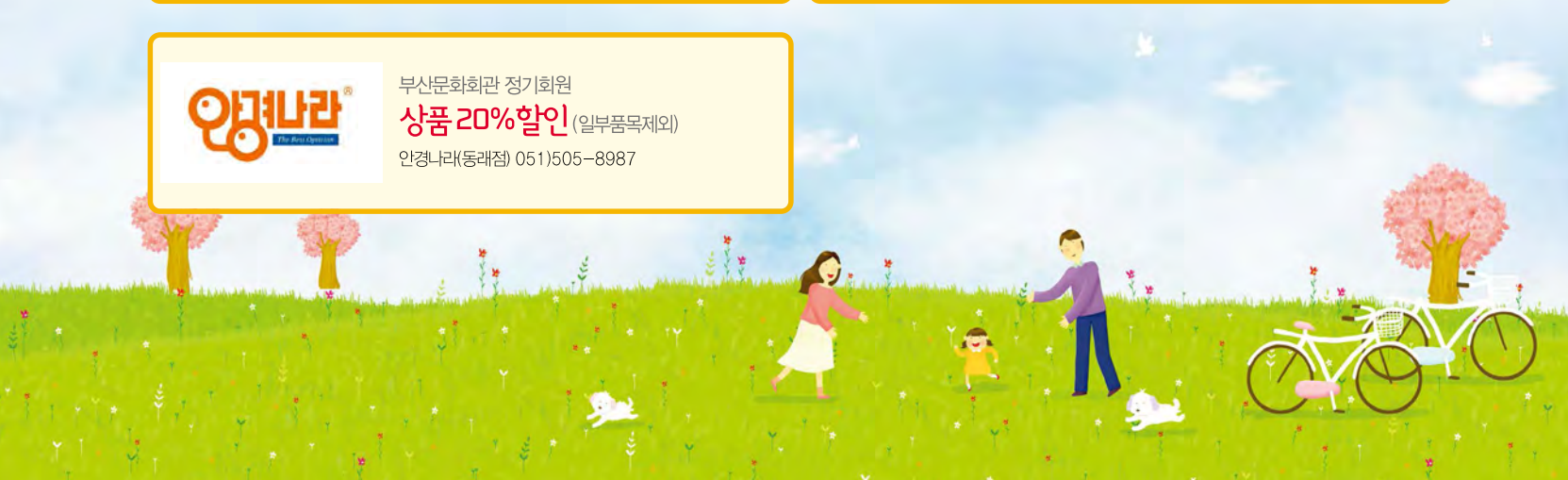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옐로인 플라워 꽃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p>부산문화회관 & 굿윌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330,6000 하단 209,6015 서면 606,6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p>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회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신설)	20,000원	1매

* 단체가입할인 :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이상(30%)

회원 가입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관람권 예매

- 예매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

회원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5~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예매 및 현장(당일) 관람권 구입시 할인(정기회원카드 제시, 입석 할인불가)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문화강좌, 시민예능교실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할인쿠폰발행

- SKY하늘안과, 공간소극장, 모차르트,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필하모니, 하나돈가스(센텀점), 새날한의원(광안점/해운대점), 메가박스(서면점), 안경나라(동래점), 옐로인플라워(본점, 대연혁신점), 카페 빈센트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회

동물의사육제



지휘 김범수



피아노 이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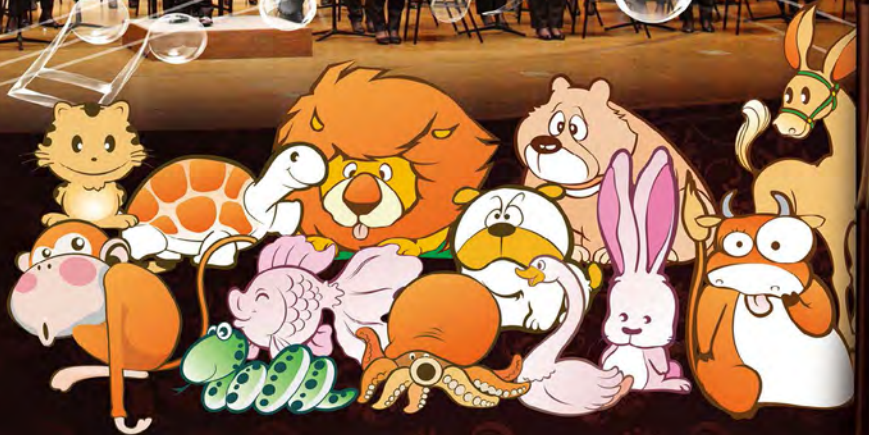


피아노 김성경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제1악장
생상스 / 동물의 사육제 (1~14곡)



2016. **1. 28**(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 | 균일 2,000원 문의 | 607-3105(홍보팀) 607-3146(운영팀) **할인이벤트 | 3+1 가족이벤트(티켓 3매 구매 시 1매 무료)**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6회 정기연주회



일본을 대표하는
재일 한국인 지휘자 **세이쿄 김**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Program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L.v.Beethoven | Overture to 「Prometheus」

베토벤 | 교향곡 제4번
L.v.Beethoven | Symphony No.4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4번
P.I.Tchaikovsky | Symphony No.4

2016. **1.21**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